

# 백운화상의 '無心'에 관한 서지적 연구

## A Bibliographical Research on 'Musim' Presented by Baegun Hwasang

김 성 수(Sung-Soo Kim)\*

### 목 차

- |                            |                                |
|----------------------------|--------------------------------|
| 1. 서 론                     | 4. 『직지』 상권 '서천 제6조사'까지 표방되는 주제 |
| 2. 『백운화상어록』에 표방되는 無心 및 無心禪 | 5. 결 론                         |
| 3. 『직지』 상권 '과거7불'에 표방되는 주제 |                                |

### 초 록

백운화상이 제시한 '무심(無心)'에 관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無心'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는 ① '마음쓰임 없음', ② '마음이라 할 것도 없음', ③ '마음 없음' 등으로, 해당 계송(偈頌) 등의 문맥에 따라 옮기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백운화상의 無心은 '평상시의 일없는 마음(平常無事底心: 平常心)'이며 '내려놓음(放下着)' 이면서 동시에 '깨달음의 성품(眞如之性)'을 의미한다. 이러한 無心은 달마조사의 '사람의 마음을 곧장 가리켜 자신의 성품을 꿰뚫어 보아 깨달음을 얻음(直指人心 見性成佛)' 및 석가모니의 '내려놓음(放下着)' 계송에 계합(契合)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無心은 '구하거나 집착하는 마음쓰임 없음'이며 "평상시의 일없는 마음으로, 일상생활에서 몸과 마음을 놓아버리고(放下着) 다만 '마음쓰임 없음(無心)'이기만 하면, 저절로 깨달을 것이다"라고 경험적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셋째, 백운화상의 無心을 『직지』에 수록된 '과거7불' 및 '서천 6조사' 등의 계송 내용과 비교분석한 결과, 석가모니의 '방하착' 및 서천조사 등의 '즉비(卽非)의 중도적 관점' 등의 사상을 견지(堅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無心'을 특히 강조한 백운화상의 '무심선'은 달마선종이나 육조혜능의 선법(禪法) 및 임제종 조사선(祖師禪)의 본질을 가장 명확하게 계승하여 밝힌 선법임을 파악하였다.

### ABSTRACT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Musim' presented by Baegun Hwasang was analyzed from the viewpoint of a bibliography.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t is reasonable to translate 'Musim' into Korean to mean ① 'free from cares', ② 'there is nothing called a heart', and ③ 'no anxieties' according to the context of praises. Second, Musim by Baegun means 'calm mind without any trembles in ordinary times', 'unload any worries', and 'the spirit of awakening'. Such concepts of Musim agree with the praises of 'Awakening by seeing through a person's own heart' presented by Dalma Josa, and 'Unloading any worries' presented by Buddha. Therefore it is understood that Musim is the mental state of 'being free from cares which seek and hold', and Baegun Hwasang presents his experiential awakening 'by keeping his mind calm without any trembles in ordinary times, unloading any worries, and freeing himself from cares'. Third, it is confirmed that Musim by Baegun when compared with the praises presented by 'Gwageo 7 Buls' and 'Seocheon 6 Josas' in Jikji, firmly holds the ideas of Buddha's 'Unloading any worries' and Seocheon Josa's 'Neutral perspective based on double negations'. Therefore, Baegun Hwasang's 'Musimseon' which especially emphasizes 'Musim' is the method of meditation which most clearly inherited the nature of Dalma Seonjong or Yukjo Hyeneung, and Imjejong's meditation.

키워드: 백운화상, 無心, 마음(心), 『백운화상어록』, 『직지』,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 평상심(平常心)  
Baegun Hwasang, Musim, Heart, Baegun Hwasang Eorok, Jikji,  
Baegun Hwasang Chorok Buljo Jikji Simche Yojeol, Calm mind

\*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muyokss@hanmail.net)

논문접수일자: 2012년 10월 22일 최초심사일자: 2012년 10월 22일 게재확정일자: 2012년 11월 6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4): 119-146, 2012. [http://dx.doi.org/10.4275/KSLIS.2012.46.4.119]

## 1. 서론

백운경한(白雲景閑: 1298-1374)<sup>1)</sup>은 태고보우(太古普愚: 1301-1382)<sup>2)</sup> 및 나옹혜근(懶翁惠勤: 1320-1376)과 더불어 고려 말기의 선종(禪宗)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하지만 백운화상은 태고화상이나 나옹화상에 비하여 알려진 바가 적다. 한편 20세기 후기에 들어와서 백운화상의 『직지(直指: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는 현존하는 세계최고(世界最古)의 금속활자 인쇄본(1377년 鑄字印施)<sup>3)</sup>으로 세계적으로 공증(公證)되고 <세계기록유산

(MOW: Memory of the World)>으로 등재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직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無心(무심)’ 및 ‘無心禪(무심선)’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지금까지도 희소한 편이다.<sup>3)</sup>

주지(周知)하는 바와 같이, 『직지』는 중국 선종(禪宗) 중 임제종<sup>4)</sup> 호구과<sup>5)</sup>의 선사였던 석옥청공(石屋淸珙)이 조사선(祖師禪)의 요지(要旨)로 편찬한 『佛祖直指心體要節(불조직지심체요절)』 1권<sup>6)</sup>에 대하여, 백운화상이 75세의 나이에 노안(老眼)을 비비면서 선종의 조사들이 바로 깨달아 얻은 핵심 요절(心體要

- 1) 『직지』에서 백운화상이 직접 쓴 跋文에 의하면, ‘발문을 쓰는 壬子(1372)년이 75세의 나이’라 하였으므로, 백운화상의 출생년도는 바로 ‘1298년’임을 파악할 수 있다. 백운경한에 관한 공식적인 역사 기록은 <『고려사』 권54, 志8>에 보이는 사항이 유일하다. 즉 ‘1346년(충목왕 2) 5월 13일(陰)’의 기록에, “승려 백운에게 비를 빌게 하다(二年五月辛卯 命僧白雲祈雨, 不得)”라 하였다. 이로 보아 백운화상은 1298년(전북) 고부에서 출생하여 출가한 후, 오래 동안 운수남자로 떠돌며 오로지 禪의 수행에만 몰두하며 정진하다가, 1346년 무렵에야 비로소 중앙정부에 高僧으로 알려졌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 2) 태고보우(1301-1382)는 공민왕(1351-1374) 당시 王師의 지위에 있었으며, 우왕(1374-1388) 때에는 國師의 직책을 맡아서 고려말의 불교계를 대표하였던 인물이다.
- 3) 다만, ① ‘백운화상의 무심선’에 관한 논문은 <정병조, “白雲의 無心禪에 관하여,” 『韓國佛敎學』 제3집 (서울: 한국불교학회, 1995), 273-281.>의 단 1편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논문에는 결론 및 참고문헌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하여 있다. ② ‘백운화상’에 관한 논문은 <박문열, “白雲和尚에 관한 연구,” 『人文科學論集』 第17輯 (청주: 청주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7), 323-345.>이 있다. ③ 『직지』의 내용 일부를 풀어서 해설한 교양 도서로서 <정계규, 『마음을 노래한 글, 직지』 (청주: 충청북도, 2006).>가 있다.
- 4) 達磨禪宗 이래 六祖慧能 이후 唐宋宋初에 형성된 중국 선종의 5門派 중, 백장회해 → 황벽회운 → 臨濟義玄(?-867)으로 내려오는 법맥에서 임제의현을 初祖로 다시 내세워 전개되는 법맥을 ‘임제종’이라고 함. 위 5문파를 ‘5家’(위양종(원산영우, 앞산해적) · 임제종(임제의현) · 조동종(동산양개, 조산본적) · 운문종(운문문인) · 법안종(법안문익))라 하고, 나중에 宋代 ‘임제종’의 계파에서 ‘황룡파’와 ‘양기파’를 합해서 ‘7宗’이라 함.
- 5) 육조혜능으로부터 임제종 虎丘派의 석옥청공 및 백운경한으로 전해진 무심선의 법맥 계통을 살펴보면, <(1) 육조혜능(638-713: 南宗禪의 창시자. ‘本來無一物. 頓悟主義. 청원행사 · 남악회양 · 하택신회 · 영가현각 등의 걸출한 제자 배출. ‘5가7종’의 선종은 모두 혜능의 법계에서 파생되었음) → (2) 南嶽懷讓(677-744) → (3) 馬祖道一(709-788: ‘平常心是道. 卽心是佛’을 표방, 백장회해 등 130명의 제자 배출) → (4) 백장회해(749-814: 백장청규: 禪院의 조직과 교단 제도의 집대성: ‘一日不作 一日不食(하루 일하지 않으면 그 하루는 먹지도 않는다)’; 作務도 역시 참선 수행 그 자체라고 가르침) → (5) 황벽회운(?-850) → (6) 임제의현(?-867: 임제종의 開祖) → (7) 흥화존장(830-888) → (8) 남원혜웅(860-930: 임제종 제3세) → (9) 풍혈연소(896-973: 임제종풍 정해집) → (10) 首山省念(926-993: 임제종 발전의 초석) → (11) 섭현귀성(생몰년 미상) → (12) 부산법원(991-1067) → (13) 오조법연(1024-1104) → (14) 원오극근(1063-1125: 임제종 양기파) → (15) 虎丘紹隆(1077-1136: 임제종 호구과의 開祖) → (16) 천동담화(1103-1163: 大慧宗杲와 더불어 임제 문하의 2甘露門이라 일컬어 짐) → (17) 천동함걸(1118-1186: 양기파 虎丘 門下) → (18) 파암조선(1136-1211: 임제종 양기파) → (19) 무준사범(1178-1249) → (20) 양산조흠(1215-1287) → (21) 급암종신(생몰년 미상: 元代의 대표 禪僧인 高峰(1238-1295)의 法兄弟) → (22) 석옥청공(1272-1352) → (23) 高麗 백운경한(1299-1375)> 등으로 정리하여 볼 수 있다.

節)들을 다시 증보·개편<sup>6)</sup>함으로써 2권본 『직지』로 확장하여 간행한 것이다.<sup>7)</sup> 따라서 『직지』의 본문 내용 속에는 백운화상의 근본사상이라 할 수 있는 無心 및 無心禪에 관한 내용과 정신이 크게 용해되어 책의 여러 부분에 흩어져 나타나고(散在)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직지』 및 『백운화상어록(白雲和尚語錄)』에서 백운화상이 표방하는 無心の 의미를 서지적인 관점에서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백운화상이 말하는 無心の 의미와 개념을 가장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그가 직접 설립한 『백운화상어록』을 주목하고, 오직 이 어록의 내용 속에서 설파되고 있는 '무심'과 관련한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자 한다.<sup>8)</sup>

둘째, 『직지』 상권의 내용 중에서 '과거7불(過去七佛) 및 서천 제6조사(西天第六祖師)까지'의 사항에 국한하여, 백운화상이 설파하고 있는 '무심'의 의미와 밀접한 어휘들이 포함되어 있는 해당 계송(偈頌)들을 추출하고, 이들 계송들을 정리하여 <표>로 작성하면서 해당 계송의 핵심 요어(key words) 및 주제(subject)

등을 간추려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각 <표>에 제시된 바의 내용들을 분석함으로써 『직지』에서 표방되고 있는 '무심'에 관한 사항들을 논술하고자 한다.

## 2. 『백운화상어록』에 표방되는 無心 및 無心禪

고려 말기인 14세기 중반 당시 고려불교계는 화두(話頭)를 참구하여 깨달음에 도달하고자 하는 간화선(看話禪)이 유행하였고, 특히 태고보우가 이끄는 고려 말기의 선불교(禪佛敎)는 철저하게 간화선의 입장에 서 있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태고보우와 백운경한은 각각 서로 다른 시기에 중국으로 건너가서 임제종 호구과의 석옥청공에게 참례(參禮)하였고, 그들의 참선 수행(禪修行)의 결과에 대하여 석옥화상으로부터 공히 인가(認可: 태고(1346), 백운(1352))를 받음으로써, 임제종의 법통을 이어받은(嗣法) 선사(禪師)들이다.<sup>9)</sup> 그런데 이

6) 『직지』의 발문(跋文)에서는 이에 대하여 '抄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현대에서 '초록'은 본문을 축약하여 그 핵심만을 기록한 것을 의미하나, 『직지』의 발문에서 記入된 '초록'의 의미는 오히려 1권을 2권으로 '확장·증보·개편'하는 개념으로 '초록'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특별히 유념(留意)할 필요가 있다.

7) 그리하여 백운화상이 편찬한 2권본 『직지』는 ① 과거칠불, ② 서역(인도)조사(28인), ③ 중국 및 한국 조사(110인), ④ 誌公화상의 大乘讚頌과 十四科頌 全文, ⑤ 기타 대승경론 중 발췌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8) 왜냐하면, 백운화상의 무심과 관련한 사상 등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사상은 그 자신의 어록 등에 논술된 내용 속에서 추출하고 분석하는 길만이 가장 명확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오직 백운화상이 직접 설립한 『백운화상어록』 속에서만 '無心'과 관련한 해당 사항들을 도출(導出)하고 이를 분석해 보는 방안을 채택하였음.

9) 태고보우는 1346년에 중국 호주 허무산에 올라 석옥청공을 알현하고, 禪問答 후 석옥의 嗣法제자로 인가받았다고 한다. 태고의 行狀에 입각하면, 그와 석옥청공 사이의 선문답에서 석옥은 태고에게 간화선의 화두를 놓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즉 태고와 석옥의 만남 두 번째 날에, 석옥은 태고가 올린 '太古菴歌'를 보고 '祖師의 關門'에 대하여 토론하는 과정에서, 석옥은 "그대의 깨달은 바를 보니 공부한 것이 바르고 知見이 분명하오. 그러나 그것을 모두 놓아버리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理障(이치상의 장애)이 되어 바른 지견을 방해할 것이오."라 하였다. 이에 태고는 "놓아 버리지 오래입니다"라 하였다(屋曰 據汝所得 功夫正而知見白矣 然宜一一放下 若不爾也 斯爲

두 선사가 고려로 귀국한 이후, 태고는 간화선의 수행만을 가르쳤고, 백운은 오직 무심선만을 표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백운은 당시 유행한 간화선에서는 '화두가 그 본래의 뜻보다는 오히려 또 다른 집착을 일으키는 장애가 되어 가는 당시 선가(禪家)의 그릇된 풍조를 바로 잡기 위해서 無心の 선풍(禪風)을 일으켰던 것이다(정병조 1995, 276)'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장에서는, 백운화상이 임제종 호구과의 석옥화상으로부터 '無心'을 통하여 임제종의 적통(嫡統)을 이어받았다(嗣法)'고 천명한 바로 그 '無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파악해 보고자 한다.

첫째, '백운화상의 無心이 과연 무엇인가?'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종에서 궁극적으로 깨치고자 하는 '마음(心)'<sup>10)</sup>에 대한 개념 파악 및 그 표현에 대하여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백운화상은 『백운화상어록』 중 〈홍성사 주지 시절의 법문(興聖寺入院小說)〉<sup>11)</sup>에서,

무릇 마음(心)이란 자기모양(自相)이 없기 때문에 경계[어떤 상황]에 의탁해야 바야흐로 생

겨나고, 경계의 성품 또한 본래 빈 것(空)이라서 마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나타납니다. 이렇듯 마음(根)과 경계(塵)가 서로 화합하면 그것을 지어낸 조건들과 마음이 따로 있는듯하나, 안팎으로 살펴봐도 그 바탕(體)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 안의 마음(內心)과 바깥 경계(外境)는 다만 하나(一箇)일 뿐이니, 결코 이것을 나누어 두 개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sup>12)</sup>

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마음은 형상(形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상황이나 경계(境界)에 처하였을 때 흔히들 '마음이 있다(有心)' 또는 '마음이 없다(無心)' 혹은 '마음은 생겨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한다.' 등으로 말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백운화상은 이러한 '마음의 있고(有) 없음(無)'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백운 자신이 직접 설(說)하였던 법어(法語), 즉 『백운화상어록』에서 설파하고 있는 '有'·'無' 등의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다.<sup>13)</sup>

백운화상은 〈홍성사 입원 소설〉 중에서

법석에 올라(上堂) 주장자(拄杖)를 들고 말씀

理障 得正知見矣” 師[太古]曰 “放下久矣”(太古普愚 1990, 697). 바로 이와 같은 석옥과 태고의 문답에서 '버리라'라고 한 것은 '看話禪의 지견마저도 버리라'는 개념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고보우는 귀국하여 간화선에만 집중하였다고 볼 수 있다.

- 10) 眞如의 다른 이름으로, 一心·心性·自性·法性이라고도 한다. 마음은 어느 대상을 포착하여 思惟하는 작용을 하는 것. 五蘊 중에서 識蘊에 해당한다. 석가모니가 깨달았다고 하는 無上正等正覺의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하여 마음은 일체 존재의 本性이라고 봄.
- 11) 〈홍성사〉는 노국공주(?-1365: 공민왕과 결혼한 元나라 공주)의 원찰(願刹)로 알려져 있음. 백운화상은 1352년 귀국하여, 1354년 황해도 해주 〈안국사〉에서 머물다가 1357년 입궐하라는 왕명을 받았으나 사양하였다. 1365년 나옹화상의 천거로 다시 공민왕의 부름을 받아 〈신광사〉의 주지가 되었고, 1368년에는 노국공주의 원당(願堂)인 〈홍성사〉의 주지가 되었다(무비 2011, 18).
- 12) “示衆云 夫心無自相 託境方生 境性本空 由心故現 根塵和合 似有緣心 內外推之 何是其體 當知內心外境 只是一箇 切忌分作兩橛看”(釋璨(錄) 1990, 653).
- 13) 왜냐하면, 백운화상이 『직지』 등에서 직접 기록하며 사용(記入)하고 있는 '無心'이라는 용어의 정확한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백운이 직접 설한 『백운화상어록』에서 논급하고 있는 '有·無·幻有·當體即空·當處自眞' 등의 관련 용어 및 그 개념부터 확인한 후, 그 다음에 '무심' 및 '무심선'을 파악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근본적이기 때문이다.

하셨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름을 지어 불러야 (喚作) 할까요? 대중(大衆)들이여! ‘주장자’라고 불러야 할까요? 주장자라고 부르지 않아야 할까요?”

다시 주장자를 들고서 말씀하셨다. “범부(凡夫)는 이것을 ‘있다(有)’고 말하고, 이승(二乘)<sup>14)</sup>은 이것을 ‘없다(無)’고 말하며, 연각(緣覺)은 이것을 ‘환영(幻: 幻影; 허깨비)으로 있는 것’이라 말하고, 보살은 이것을 ‘있는 그대로 비어있는 것(當體空)’이라 합니다.<sup>15)</sup>

이제 말하여 보시오. ‘있는 그대로 비어있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금강경』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一切有爲法)<sup>16)</sup>은 꿈이나 환영 같고 물거품이나 그림자 같으며, 이슬 같고 번개 같은 것이니, 응당 이렇게 보아야 한다.><sup>17)</sup>고 함이 아니겠습니까? 또 <무릇 모습이 있는 모든 것은 모두 다 허망한 것이니, 만약 온갖 모습 가진 것들(諸相)이 ‘제 모습이 아님(非相)’을 볼 줄 안다면 곧 부처(如來)를 보는 것이다.><sup>18)</sup>라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까닭으로 <부처를 본다(卽見如來: 깨달음을 얻음)>고 하였겠습니까?

옛사람의 말씀에, <만약 지혜가 뚜렷이 밝은 마음(心識)의 맑음을 보는 자[관세음보살]는 오온(五蘊)<sup>19)</sup>이 모두 비어 있음을 비추어 보고, 또 일체의 세간과 초세간(出世間)의 법이 모두 허공과 같음을 보리라>고 한 것을.

또한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장애가 바로 ‘깨달음의 끝(究竟覺)’이요, ‘현상을 바로 봄(得念)’도 ‘현상을 잘못 봄(失念)’도 모

두 해탈 아닌 것이 없으며, 지혜(成法)나 어리석음(破法)도 모두 열반이라 이름하며, 지혜로움<sup>20)</sup>과 어리석음(愚癡)이 통째로 반야(般若)가 되며, 보살과 외도(外道)가 이룬 법이 모두 보리(菩提)이며, 중생의 어두운 무명(無明)과 부처의 밝은 진여(眞如)가 다른 경계가 아니며, 모든 계율·선정·지혜(戒定慧)<sup>21)</sup>와 음욕·분노·어리석음(淫怒癡)이 모두 맑은 삶(梵行)의 모습이며, 중생과 국토가 같은 법성(法性)이요, 지옥과 천당이 모두 극락세계(淨土)이며, 불성(佛性)이 있거나 없거나 한가지로 모두 불도(佛道)를 이루고, 일체의 번뇌가 궁극적으로는 해탈이니, 법계(法界)의 바다에서 지혜로 온갖 모습들(諸相)을 비추어 보면, 모든 현상은 모두 다 허망하여 있는 그대로(當體)가 적멸<sup>22)</sup>하고, 적멸하기 때문에 그 본성(本性)은 평등한 것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또 [경전에서] 말씀하시기를, <허망한 바탕은 원래 비었으니(安體元空), 그 진부가 바로 깨달음의 마음 바탕이다>라고 하였고, <보는 것과 보이는 대상’ 및 ‘생각하는 것과 생각되어지는 것’은 모두 ‘허공꽃(空中花)<sup>23)</sup>과 같아서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은 본래 묘하고 바르고 밝은 깨달음의 바탕이다>라 하였고, 또 이르기를 <이 모든 것들의 빈 모습(空相)들은 나지도 않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요,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 것이다>라 하였습니다. 즉 이 모든 것들의 빈 모습이 그대로 깨달음의 바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쉼 없이 변화하고(諸行無常), 모든 것은 비어 있어서, 그것이 그대로

14) 이승(二乘)은 ‘2종의 敎法’이라는 뜻으로, ‘大乘과 小乘’ 또는 ‘聲聞乘과 緣覺乘’의 개념으로 많이 쓰인다. 백운화상이 여기에서 ‘二乘’이라 지칭한 것은 아마도 ‘성문승’의 개념으로 말하였으리라고 추정하여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위의 인용문에서 ‘연각’의 상태를 논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연각’의 전 단계인 ‘성문’의 의미로 ‘이승’이라 하였을 개연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15) 이는 불교의 ‘십계(十界)’, 즉 ‘지옥·아귀·축생·수라·인간(凡夫)·천상·성문·연각·보살·불(佛)’ 중에서 ‘인간, 성문, 연각, 보살, 불’계(界)의 단계에서의 상황을 차례로 논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 ‘一切法’ 또는 ‘萬法’이라고도 함. 이세상의 모든 것, 즉 ‘일체의 모든 사물이나 현상 등 모든 현상적 존재는 모두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라 하여 ‘유위법(有爲法)’을 가리킴.

17) 『金剛經』四句揭 중의 하나. “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 如露亦如電 應作如是觀.”

18) 『金剛經』사구계 중의 하나. “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

19) 불교에서 물질과 정신을 다섯 구분(色·受·想·行·識)한 것.

20) ‘迷惑을 소멸하고 부처의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힘’을 말함.

21) ‘戒(계율)·定(선정)·慧(지혜)’는 佛道의 수행자가 반드시 닦아야 할 세 가지 근본 道法으로, 이를 ‘三學’이라 함.

22) 寂滅: 生滅이 함께 없어져 無爲寂靜함을 일컫는 것으로, 곧 번뇌의 경계를 떠난 열반을 의미함.

23) 『圓覺經』에서 ‘空華’라 하여, 눈병이 있는 사람이 공중에 실재하는 꽃으로 착각하는 꽃. 본래 공한 것을 실제로 있다고 인식하는 인간의 迷妄을 설명하는 데 쓰이는 비유.

부처의 큰 깨달음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러할지라도, 우리 선종(禪宗)에서 볼 때에는, 이 늙은이가 지금까지 말한 잔소리는 오직 교종(敎宗)에서 말하는 죽은 언어(敎跡)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늙은이에게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장자(拄杖)를 보면 오직 '주장자'라고만 하고, 법당(佛殿)을 보면 오직 '법당'이라고 말합니다. 산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인] '산'이요, 물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인] '물'이다. 승려는 '승려', 속인은 '속인'입니다. 어찌하여 그러한가? 일체의 모든 것(一切諸法)은 있는 그대로 진실(當處自眞)이며, 있는 그대로 열반(當處寂滅)이며, 있는 그대로 해탈(當處解脫)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운문(雲門)선사는 '무엇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總不動着)'라 하였고, 원오(圓悟)선사 또한 '온통 진실인 세상을 다만 바라보기만 하였다(觀體全眞)'고 하였습니다. 이 늙은이의 견해도 바로 그러합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대중(衆)들이여, 이제 아시겠습니까?" 주장자를 세워 한 번 내려치시고, 곧 법좌에서 내려오셨다.<sup>24)</sup><sup>25)</sup>

라 하였다. 이 설법은 특히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백운화상은 이 법어에서 그 자신이 들고 있는 '주장자'에 대하여, 범부의 단계에서부터 성문·연각·보살 등의 경지(境地)

로 차례로 올라가는 각각의 단계(界)에서 '주장자'를 바라보는 경지에 대하여, "범부(衆生)의 경지에서는 '있다(有)', 성문계(聲聞界)의 단계에서는 '없다(無)', 연각계(緣覺界)의 경지에서는 '허깨비처럼 환영으로 있다(幻有)', 보살계(菩薩界)의 단계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공(當體空)'이라고 부른다."고 차례로 설명하다가, 이 설법의 마지막에는 드디어 "우리 선종(禪宗)에서는 주장자를 보면 오로지 [있는 그대로] '주장자'라고만 부른다(見拄杖 但喚作拄杖)"<sup>26)</sup>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주장자' 하나를 두고도, 수행자가 수행의 단계별로 올라가는 각 경계마다 그 대상(對象)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경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지어 부르는 이름(喚作: 用語) 또한 서로 다른 명칭으로 부른다는 상황을 특별히 지적하고 있음을 주목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주장자'에 대하여 각 경계에서 말하고 있는 '有'·'無'·'幻有'·'當體(있는 그대로)即空'·'[當體]拄杖(주장자)'은 결국 '주장자'의 서로 다른 이름(指稱: 부름), 즉 '주장자(拄杖)

24) "上堂舉拄杖云 這箇喚作什麼 大眾拄杖得麼 不喚作拄杖得麼 更舉杖云 這介凡夫實謂之有二乘折爲之無 緣覺謂之幻有 菩薩當體即空 且道菩薩當體即者何也 莫是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 如露亦如電 應作如是觀也 凡所有相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即見如來麼 何故即見如來 不見古人道 若觀智圓明心識淨者 照見五蘊皆空 亦見一切世間出世間法 猶如虛空 又經云 一切障礙 即究境覺 得念失念 無非解脫 成法破法 皆名涅槃 知慧愚癡 通爲般若 菩薩外道 所成就法 同是菩提 無明眞如 無異境界 諸戒定慧 及姪怒癡 俱是梵行 衆生國土 同一法性 地獄天堂 皆爲淨土 有性無性 齊成佛道 一切煩惱 畢竟解脫 法界海慧 照了諸相 猶如虛空 以此觀之 則一切諸法相皆虛妄 當體寂滅 寂滅故平等本性 又云當體元空 全是本覺心體 又云見與見緣 并所想相 如空中花 本無所有 此見及緣 元是菩提妙正明體 又云是諸法空相 不生不滅 不垢不淨 不增不減 則諸法空相 即是本體心體 故云諸行無常一切空 即是如來大圓覺 然雖如是 據我禪宗 老僧適來 如許葛藤 猶是教跡 如今老僧 總不恁麼 見拄杖 但喚作拄杖 見佛殿 但喚作佛殿 山是山水是水 僧是僧俗是俗 何故如此 一切諸法 當處自眞 當處寂滅 當處解脫 故云雲門總不動着 圓悟觀體全眞 老僧分上見解如是 見解如是 還叶衆慈麼 卓拄杖一下 便下座。"(①釋璨(錄) 1990, 640-641; ②釋璨(錄) 1974, 20-22)

25) 위 설법의 내용으로 보아, 백운화상은 규봉종일이 세운 5종선(외도·범부·소승·대승(菩薩)·최상승) 중 최상승선에 입각한 것으로 보인다. 즉 如來禪은 능가경·반야경 등에서 여래의 敎說에 의거하여 깨닫는 선을 가르친 것이고, 祖師禪은 달마의 正傳인 석가의 마음을 마음으로 아는 참된 禪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26) 이로 보아 백운화상은 보살계의 상위(上位) 단계, 즉 불계(佛界)의 단계와 선종계(禪宗界)를 동일시(同一視)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 有 ⇒ 無 ⇒ 幻有 ⇒ 當體即空 ⇒ [當體] 주장자(拄杖)'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선종(禪宗)에서의 상황적 개념을 유의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백운화상은 '주장자'에 대하여 『금강경』 사구계(四句揭) 등의 구절을 빌어 설명하다가, 결국 이런 설명은 '교종의 죽은 언어(教跡)'에 불과하며, 선종에서는 "주장자를 보면 오로지 '주장자'라고만 부른다."라고 설파하고 있다.

위와 같이, 선종에서의 '마음'에 대하여, 백운화상의 오직 '있는 그대로(當處: 事實: fact: reality)' 보고자(照見) 하는 관점은 <'마음'이나 '이 세상의 모든 것(對象)'에 대하여, 그 어떠한 주관(主觀)의 개입도 없이, 오직 있는 그대로 보고 인식(認識)하자>는 의미일 것이다.<sup>27)</sup> 즉 백운화상의 '주장자를 보면 다만 주장자라고 하듯이, 산은 있는 그대로 진실한(當處自眞) 바의 산이요, 물은 있는 그대로의 물이다'라고 한 것은, '마음(內心)이나 바깥경계(外境: 對象)에 대하여, 자신의 그 어떤 주관이나 타자(他者)의 교시(教示) 등을 전혀 개입시키지 않고, 오로지 있는 그대로의 사실(事實: fact: 眞相)만을 보자는 개념임을 파악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항은 선종에서 참구(參究)하는 '마음(心)'에 대하여, 백운화상이 특별히 '無心'이라고 지칭하는 개념의 특별함을 추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서(端緒)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바로 위와 같은 관점으로 백운경한의 참선 수행(禪修行) 및 사상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을 들라고 한다면 단연 '無心'이라는 용어를 주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흔히들 '無心'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마음이 없음'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기 쉽다. 이에 따라 백운화상이 편찬한 『직지』와 『백운화상어록』에 한문(漢文: 漢字)으로 기입(記入)된 '無心'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그냥 단순히 '마음이 없음'으로만 옮길 때에는 그 내용적인 의미가 온전하게 전달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백운화상어록』 중에서 백운화상이 지칭하는 '무심'에 관하여 고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백운화상어록』의 상권(卷上)에, <1370년(庚戌) 9월 15일, [공민]왕으로부터 공부선(功夫選)을 주관하라는 분부를 받고(洪武庚戌九月十五日 承內教功夫選取御前 呈似言句)>에서,

저의 소견으로는, 공부한 승려를 시험하는 사람(試驗官)은 '화두(話頭)'나 '수어(垂語)' 또는 '색·성·언어(色聲言語)'로 시험합니다. .... (中略) .... 또 한 가지 가장 오묘(最妙)한 방편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無心 또는 無念'이라고 하는 방편입니다.

이를테면 육조(六祖: 慧能)대사는 '일체의 선·악 모두를 생각하거나 헤아리지(思量) 말라. 그러면 저절로 청정한 참마음(心體)을 깨달아, 맑고 언제나 고요하여 그 묘한 작용이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황벽(黃蘗)선사는 '도(道)를 배우는 사람은 바로 있는 그 자리에서 無心하지 못하면 아무리 마음을 닦아봐야 끝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장졸상공(張拙相公)은 '한 생각(一念)도 일어나지 않으면 전체가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도위(都尉)<sup>28)</sup> 이문화(李文和)<sup>29)</sup>는 '곧장 위없는 깨달음(無上菩提)으로 나아가고 일체의 시비(是非)에는 상관치 말라'고 하였습니다.<sup>30)</sup>

27) 현대철학에서 말하는 <현상학>에서의 '事實學'과 비교·분석해 볼 필요도 있는 부분이다.

28) 중국 진·한 때부터 郡의 군사·경찰 업무를 맡아보았던 벼슬 이름. 또는 부마도위(駙馬都尉)의 약칭이라고도 함.

라 하여, 공부한 승려의 수행 정도를 시험하는 가장 오묘한 방법은 바로 無心임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그리하여 백운화상은 육조혜능과 황벽희운 등의 말을 인용하면서 無心에 대하여 부연하여 설명하기를 ① 일체의 선·악(善惡) 그 모두를 생각하지도 말고 헤아리지도 않으면, 저절로 청정한 참마음(心體)으로 들어가 깨달을 수 있다. ② 도를 배우는 사람은 바로 있는 그 자리에서 無心하기만 하면 이룰 수 있다. ③ ‘한 생각(一念)’도 일어나지 않으면 전체가 드러난다. ④ 일체의 옳고 그름에 상관하지 말고 곧장 위없는 깨달음으로 나아가라.’ 등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백운화상이 제시하는 無心の 개념은, ‘일체의 선·악이나 옳고 그름(是非) 등에 상관이 없거나 생각(一念)조차 하지 않

는 것’, 즉 ‘마음에서 이리 저리 헤아리거나(思量) 분별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이러한 無心の 개념을 우리말로 풀어서 해석하여 보면 ‘선악(善惡)이나 시비(是非) 및 사랑·분별하는 등의 그 어떤 한 생각(一念)도 일으키지 않는 마음’, 즉 ‘마음씀이 없음’이라고 할 수 있다.<sup>31)32)33)</sup>

셋째, 『백운화상어록』 하권(卷下)에서 “1353년(癸巳) 1월 17일, 하무산에서의 깨달음을 암자에 같이 머무는 2-3형제에게 보임(師於癸巳正月十七日 記霞霧山行 示同庵二三兄弟)”의 내용에 의거하면 ‘백운화상은 크게 두 번 깨달았다고 볼 수 있다. 그 첫 번째의 깨달음은 백운화상이 중국에서 석옥청공의 지도를 받으면서 참선(禪) 수련하던 때인 ‘1352년 1월 12일’<sup>34)</sup>에 관한 사항이다. 즉

29)李文和는 임제종 곡은온총(谷隱蘊聰: 965-1032)의 유발(有髮)제자. 그의 스승 곡은온총은 ‘石門慈照禪師’라고 지칭되기도 하며, 首山省念(926-993)의 嗣法弟子. 곡은온총은 谷隱山에 머물면서 임제 종풍을 널리 선양하였음(『五燈會元』 11).

30) “據我所見 驗人功夫者 或以話頭 或垂語 或以色聲言語. 話頭則或趙州無字 或萬法歸一 或父母未生前面目. 此如大疑之下 必有大悟 如云心若無疑 心路不絕故也. 垂語則或庭前柏樹子 麻三斤 乾屎橛 此本分宗師 本分答語 如活句道得 大道本 此是祖師禪也 具色聲言語. 以色示法示人 則或拈匙擊拂 揚眉瞬目 豎起拳頭 舉筆舉起杖子 如靈雲因見桃花悟道是. 以聲示法示人 則或行杖下喝 敲禪床三下 敲鼎蓋三下 三喚侍者 門外是什麼聲 還聞偃溪水聲麼 僧云聞 沙云從這裏入 如香巖擊竹明心是. 以言語示法示人 則趙州問僧 喫粥了未 僧云喫粥了 州云洗鉢盂去 其僧悟去. 又詔國師 侍側法眼次 有僧問法眼 如何是曹源一滴水 法眼即答云 是曹源一滴水 國師言下大悟是. 又有最妙一方便 或以無心 或以無念. 如六祖云 一切善惡都莫思量 自然得入清淨心體 湛然常寂 妙用恒沙. 黃蘗云 學道人 若不直下無心 累劫修行終不成. 張拙相公云 一念不生全體現. 李文和都尉云 直趣無上菩提 一切是非莫管.”(釋璨(錄) 1990, 656)

31) 즉 ‘한 생각(一念)’이 생긴다고 할 때의 그 일념은 分別見을 가리킨다. 그 分別의 일념이 대립과 갈등을 유발시키는 씨앗이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백운의 看話였던 것이다. 白雲은 無念無想을 禪의 究竟으로 보았다(정병조 1995, 276).

32) 한편, 『직지』와 『백운화상어록』을 번역한 바 있는 무비 스님은 ‘무심’에 관하여, ‘세계를 해석하는 욕망이 아닌,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를 이루는 노력인, 禪의 주제는 마음을 모우는 힘과 바라봄의 힘에 있다. 삶의 모든 순간을 밝게 바라보는 힘이 끊임없이 이어짐을 불교에서는 無心이라고 부른다(무비 1996, 12).’라고 하였다.

33) ‘無心’을 번역할 때 ‘마음씀이 없음’으로 옮긴 것은 <무비, 『직지 강설』 上·下 (서울: 불광출판사, 2011)>의 번역 내용을 크게 참조하였음을 여기에 밝혀둠.

34) 『백운화상어록』 卷下, “癸巳(1353)년 1월 17일, 스승은 하무산에서의 깨달음을 암자에 같이 머무는 2-3형제에게 보이심(師於癸巳正月十七日 記霞霧山行 示同庵二三兄弟在佛覺禪寺述)”에 의거하면, <[백운경한은 중국으로 유학길에 올라] 1351년(壬辰) 5월 17일에 중국 元나라의 湖州 하무산 천호암에 있던 석옥청공과 첫 대면한 후 수많은 날 동안 법(法: 無念眞宗)을 묻고 배워, 1352년 1월 12일에 드디어 ‘無心·無上의 眞宗(무심의 참된 마루(絶頂: 頂上; 깨달음(覺))’에 은밀히 契合함으로써 스승(청공)으로부터 認可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지난 해 임진년(1352) 정월 초순, 천호암(天湖庵)에 머물고 계시는 스승님 곁에 다시 가서,<sup>35)</sup> 정성어린 마음으로 아침·저녁으로 여쭙어 의심을 풀었다. 1월 12일,<sup>36)</sup> 무심무념(無心無念)의 진종(眞宗)에 은밀히 계합(契合)하고, 평상에서 내려와서 세 번 절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sup>37)</sup> 스승께서 즉시 물으셨다. “그대 마음이 어떠한가에 이토록 기뻐하는가?”

나도 즉시 대답하였다. “마음이 크게 기뻐합니다!” 스승께서 즉시 따져 물었다. “어떤 도리를 얻었기에 그대 마음이 기뻐하는가?”

나 역시 대답했다. “〈그 어떤 마음(如何心)〉을 알고 나니 저절로 기뻐합니다!”

스승께서 다시 부촉하셨다. “내가 그대의 기쁨을 도와주리라. 그대의 마음이 기쁘니 나 역시 기쁘고, 내가 기쁘니 시방(十方)의 모든 부처와 보살들이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다시 기뻐하는구나!” 이처럼 세 번 말씀하시고 세 번 반복해서 찬탄하시니, 내 마음의 의심이 얼음이 녹듯 단박에 풀리면서 무심무념의 진종을 깊이 믿게 되었다. 다시 이틀 밤을 더 머물면서(留二宿) 보다 충실히 마음(心)을 논한 뒤에, ‘상원절(1월 15일) 저녁(上元燈夕)’에 스승[석옥청공]과 눈물로 작별하였다(泣別尊顏).

산을 내려와 배를 타고 순풍을 만나 3일만에 휴휴선암(休休禪菴)에 도착하였으나, 당시 흥

진적이 곳곳에 발호하여, 육로와 수로가 모두 막혀서 가고 오기가 어려워 이리저리 배회하였다. 한 달간 휴휴선암에서 식객생활을 하다가, 2월말이 되어서야 [중국] 대창(大倉)에서 배를 띄우고, 1352년 3월 중순에 바다를 건너, 3월 엿이(念二: 22)일에 [고려의] 육지에 올라 귀국(入國)하였다.<sup>38)</sup>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1352년 1월 12일의 깨달음’에서는 백운화상이 ‘무심의 참된 깨달음(無心無念眞宗)<sup>39)</sup>에 은밀히 계합하였고, 백운화상은 이 깨달음을 스승 석옥화상과의 대화에서 ‘그 어떤 마음(如何心)’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1352년 1월 12일의 깨달음’은 <1354년, 해주 안국사에서 재(齋)를 베풀고 설한 법문><sup>40)</sup>의 마지막 계송 중에 다시 거론된다.<sup>41)</sup> 즉 이 계송을 노래한 법회는 1354년(甲午) 6월 4일에, 석옥청공의 제자인 법안 선인(法眼禪人)이 고려로 직접 건너와서 석옥화상의 “사세송

35) 백운화상과 석옥청공의 첫 만남은 ‘1351년 5월 17일’이었으며, 이 때 ‘참마음(眞心)’에 대한 사항 및 ‘조주의 無’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이 때 백운화상은 “조주의 ‘無’자는, ‘있다·없다의 無’ 또는 ‘虛無의 無’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의 살아있는 無’자입니다”라 하였다. 이에 석옥선사는 침묵으로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백운은 석옥에게 계송을 올리는 절차를 밝게 된다(釋璨(錄) 1990, 656-657).

36) 원문에 ‘上元前三十有三日’이라 한 것은 상원절(上元節: 1월 15일)을 맞이하는 30일 중의 3일 전, 즉 ‘1월 12일’로 보아야 할 것임. 왜냐하면 위 인용문의 다음 구절에서 “다시 이틀 밤을 더 머물고, ‘上元燈夕’ 즉 ‘1월 15일’의 상원절 등(燈)을 밝히는 저녁’에 스승과 작별하였다”는 문장을 보아도 그러하다.

37) 바로 이때가 곧 백운화상이 無心에 관한 첫 깨달음의 시점 및 상황이라 볼 수 있다.

38) “去年壬辰正月月上旬 再造天湖師傳身邊 勤意旦夕諮決心疑 上元前三十有三日 密契無心無念眞宗 下床三拜 依位而立 師即問曰 汝心如何莫有喜否 我即答曰 心大歡喜 師即微問 得可道理 汝心歡喜 我又答曰 知他如何心自歡喜 師即囑曰 吾助汝喜 汝心歡喜 吾亦歡喜 吾亦歡喜 十方諸佛菩薩 歡喜歡喜歡喜 如是三說三復嗟歡 即我心疑 頓然水釋 深信無心 無上眞宗 更留二宿 疑疑論心 上元燈夕 泣別尊顏 下山上船 來得順風 三日早到休休禪菴 時有紅頭隨處橫闊 水旱路塞 去住難便徘徊 一月客食休休 二月月盡 發船大倉 三日月半 渡海而來 三月念二 上岸入國.”(釋璨(錄) 1990, 657)

39) 無心無念眞宗: ‘무심(無心: 無念)의 참된 마루(頂上), 즉 무심의 궁극적인 참된 깨달음’이라 볼 수 있음.

40) 至正甲午(1354)六月初四日 禪人法眼自江南湖州霞霧山天湖庵石屋和尚辭世陪來 十四日師於海州安國寺設齋小說.

41) “임진년(1352) 정월 이른 봄 / 스승 곁에 나아가 단련을 받고 / 1월 12일에, 무심의 위없는 진리에 은밀히 계합하였네[깨졌네](密契無心無上宗) / 부처와 조사도 다 살아 버리는 큰 풀무화와와 / 성인과 범부를 모두 담금질하는 모진 부처가락으로 / 억겁동안 뒤바뀐(顛倒) 나의 생각을 불살라 버리고 / 한 순간 선 그 자리에서 진리의 몸(法身)을 이루었네. / 나 이제 스승으로부터 전법계를 받았으니 / 깨치지 못한 이들을 가르쳐 나처럼 증득하게 하리다(我於壬辰正月春 躬造室中受熏練 上元前三十[有]三日 密契無心無上宗 烹佛烹祖大爐鑪 煨凡煨聖惡鉗鎚 燒我億劫顛倒想 不歷僧祇獲法身 我今亦受傳法揭 轉教未悟如我證).”(釋璨(錄) 1990, 657-659)

(辭世頌: 傳法揭)”을 백운화상에게 손수 전달하였고, 이 날(6월 14일) 백운화상이 석옥청공을 위한 재(齋)를 베푸는 법회였다. 백운화상은 석옥청공의 전법계를 받고, 그 추모재의 설법현장에서 자신의 첫 번째 깨달음의 시점인 ‘1351년 1월 12일과 그 내용’을 노래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sup>42)</sup> 그리하여 『백운화상어록』에는 이 법회 내용의 첫머리에,

흰구름 사느라 맑은 바람 모두 팔았더니 / 온 집안이 텅 비어 뼈 속까지 가난일세. / 남아있는 한 칸 초가집은 / 길 떠남에 병정동자에게 건네주노라(白雲買了賣清風 散盡家私澈骨窮 留得一間茅草屋 臨行付與丙丁童).<sup>43)</sup>

라 하여, ‘석옥청공이 입적(入寂)하면서 입제중 호구파의 법통(法統)을 고려의 백운경한에게 물려줌(嗣法)을 천명(闡明)하는 전법계(傳法揭: 辭世頌)’를 그 기록(記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로써 중국 선종 중 조계종, 즉 육조혜능(638-713)으로부터 시작되어 황벽회운(?-850)에서 입제의현(?-867)으로 전해지고, 입제의현에 의하여 다시 입제종으로 웅비(雄飛)한 달마(達磨)의 정통 법맥이 드디어 석옥청공(1272-1352)으로부터 고려의 백운경한(1299-1375)에게 적통(嫡統)으로 계승(嗣法)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넷째, ‘백운화상의 두 번째 깨달음’은 보다 근

본적이고 구체적이며 더욱 깊은 깨달음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백운화상이 중국에서 귀국한 이후 1년이 채 되지 않은 ‘1353년(癸巳) 1월 17일의 깨달음’ 사항이다. 즉

계사(癸巳: 1353)년 1월 17일 낮에, 고요히 좌선(端坐)하고 있던 중, 영가대사(永嘉大師)의 『증도가(證道歌)』 속에 “망상(妄想)을 없애지도 말고 참됨(眞)을 구하지도 말라. 무명(無明)의 실제 성품이 곧 불성(佛性)이요, 환상으로 나타난 비어있는 몸(幻化空身)이 바로 법신(法身)이다”라고 한 구절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서 그 말을 깊이 음미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홀연히 바로 무심(無心)이 되었다. 한 생각(一念)도 일어나지 않고 앞뒤의 사이가 끊어지면서 전혀 기댈 곳이 없어지자 그윽하고 깊숙한(冥然)한 경지에 이르렀다.

그러다가 갑자기 삼천대천세계가 온통 하나의 자기일 뿐, 몸과 마음은 하나(身心一如)로서 몸 밖에 따로 산하대지(山河大地), 밝고 어두움(明暗), 현상과 비어있음(色空), 범속함과 거룩함(凡聖)이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몸과 마음이 사라지자 저절로 평등을 다하게 되고, 그 평등이 뚜렷한 밝음(圓明)과 혼연일체를 이루니, 무심의 힘이 작용하면서 전체가 현성(現成)하여 정수리로부터 발바닥까지 꿰뚫었으며 과거와 현재(古今)를 초월하였다. 본래부터 움직이는 바가 없던 것이지 지금에 와서 비로소 적멸한 것이 아니었다. 평등하고 평등해서 애초부터 근본은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야 이 일이 언구(言句)에 있지 않고, 근(根)<sup>44)</sup>과 진(塵)<sup>45)</sup>을 멀리 벗어났으며, 안팎에도 있지 않고 중간에도 있지 않아 그 바탕(體)이 참되고 영원함(眞常)을 드러내고 있으며, 심히 고요(湛然凝寂)하여 그 묘한 작용이

42) 즉 백운화상은 ‘1351년 1월 12일의 깨침’을 이 계승에서 명확히 밝히고, 이와 더불어 석옥청공으로부터 전법계를 받은 사법(嗣法)제자, 즉 입제종의 법을 이어받은 道人으로서 미혹한 중생들을 제도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43) 이 전법계에서 ① ‘白雲’은 백운화상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② “온 집안이 다 비어 뼈 속까지 가난일세”의 의미는 ‘백운화상에게 자신의 법통(法統)을 온전하게 모두 건네주어 이제 하나도 남은 것이 없다는 개념일 것이다. ③ “길 떠남에, 한 칸 초가집은 병정동자에게 건네주노라”는 ‘내가 세상과 작별(入寂)함에, 나의 법맥을 병정동자(丙丁: 불(火): 法燈)을 상징한다고 함’, 즉 백운화상에게 계승시킨다는 의미라 볼 수 있다.

44) 六根: 眼·耳·鼻·舌·身·意를 의미함.

45) 六塵: 인간의 心性을 더럽히는 六識의 對象界, 곧 육근이 외부의 경계인 六境(色·聲·香·味·觸·法)을 만나서 일으키는 여섯 가지 욕망을 의미함. 육적(六賊), 외진(外塵).

갠지스강의 모래알(恒河沙)처럼 헤아릴 수 없  
이 많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sup>46)</sup>

라고 하여, 자신의 깊은 깨달음(無心)에 대하  
여 스스로 증언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위의 인용문에 근거하면, '백운화상이 깨달은  
무심'은 곧 <한 생각(一念)도 일어나지 않고 앞  
뒤의 사이가 끊어지면서 전혀 기댈 곳이 없어지  
면서 그윽하고 깊숙한(冥然)한 경지에 이르게  
된다. 그리하여 삼천대천세계가 온통 하나의 자  
기일 뿐, 몸과 마음이 하나(身心一如)로서 몸  
밖에 따로 산하대지(山河大地) · 밝고 어두움  
(明暗) · 현상과 비어있음(色空) · 범속함과  
거룩함(凡聖)이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다. 그리하여 '무심'은 <이  
일[無心]은 말(言句)에 있지 않고, 근(根: 마  
음)과 진(塵: 속세의 일)을 멀리 벗어났으며,  
안팎에도 있지 않고 중간에도 있지 않아, 그 바  
탕(體)이 참되고 영원함(眞常)을 드러내고 있  
으며, 심히 고요(凝寂)해서 그 묘한 작용이 갠  
지스 강(恒河沙)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여기에서, 백운화상이 깨달았다고 하는 '無心  
의 경지'는 '마음에서 그 어떠한 한 생각(一念)  
도 일어나지 않고, [생각(想念)] 앞뒤의 사이가  
완전히 끊어지고 전혀 기댈 곳이 없으면서 깊  
숙한 경지에 이르는 상태'임을 파악할 수 있다.

다섯째, 실제로 백운화상은 <흥성사 입원 소  
설>에서도 '無心'을 가장 중요시(究竟)하여,

산승(山僧: 백운)은 지난 해 [중국 양자강의]  
강남과 강북을 돌아다니면서 선지식(善知識)  
만 있으면 모두 찾아뵈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하무산 천호암의 석옥(石屋) 노화상을 찾아뵈  
고, 많은 날 곁에서 모시며 오로지 무념진종(無  
念眞宗)의 가르침만을 배워 부처(如來)의 가장  
오묘한 도(道)를 원만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도  
(道)는 '마음이 있게 함(有心)'으로도 구할 수  
없고, '마음이 없게 함(無心)'으로도 얻을 수 없  
으며, 말(言語)로도 이룰 수 없고, 침묵(寂默)  
으로도 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말  
(語)을 해도 어긋나고 입을 다물어도(默) 어긋  
나니, 침묵과 말(寂語)을 함께 놓아버린 곳에  
길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노승[백운]은 여기서 그저 말문이 탁 막혔으니,  
이 네 구절에 마음 쓸 곳이 없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 뜻을 손안에 넣게 되었습니다. 석가세  
존(佛)의 말씀에 '無心이야말로 세상(世間 ·  
出世間)의 공덕 중 가장 크고 불가사의한 것이  
다'라 하셨습니다.

석가세존(釋迦世尊)께서 반야법회(般若法會)  
에서 문수사리보살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부  
사의삼매(不思議三昧)<sup>47)</sup>에 들었는가?" 문수  
보살이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 이 [부사의]삼매는 실로 마음의 상념(想念)  
이 없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치 활쏘기를  
배우는 사람이 오래 익혀 능숙해지면, 그 다음에  
는 그저 무심히 활을 쏘는 데도 오래 익혔기  
때문에 모두 정확하게 맞추는(的中) 것처럼, 저  
역시 부사의 삼매를 처음 배울 때에는 한 가지  
주제에 마음을 묶어 두었으나, 오래도록 익혀  
성취하고 나서는 그 어떠한 마음의 상념도 없이,  
즉 모든 생각이 다 끊어져 항상 삼매로 있게

46) “至於癸巳正月十七日午 端坐自然 思念永嘉大師證道歌中 不除妄想不求眞 無明實性即佛性 幻化空身即法身. 念到這裏 深味其言 忽正無心 不生一念 前後際斷 了無依倚 到冥然地. 驚爾明見三千世界 都盧是箇一箇自己 身心一如 身外無餘 山河大地 明暗色空凡聖. 身心泯然 自盡平等 平等圓明混成 無心力用全體現成 透頂透底 超今邁古. 本無所動 今無始寂 平等平等 無始本異. 深信此事 不在言句, 迥脫塵根 不在內外 不在中間 體露眞常 湛然凝寂 妙用恒沙.”(釋璨(錄) 1990, 657)

47) 不思議三昧 중 '부사의'는 <12眞如> 중의 마지막 '不思議界'를 의미한다. '眞如'는 '사물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의미한다. '삼매'는 '禪定, 즉 참선 수련 중 잡념이나 번뇌를 여의고 한 가지에만 마음이 집중되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지'를 의미함. 따라서 부사의삼매는 '세상의 모습(色: 相)에 대하여, 그 어떤 상념도 개입시키지 않고,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마음을 항상 지속적으로 유지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되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지에 이르러야 비로소 ‘대선정(大禪定: 那伽)<sup>48)</sup>은 항상 선정에 들어 있으니 선정 아닌 때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가세존(佛)은 “무심(無心)의 공덕(功德)이 야말로 가장 뛰어나서 그 무엇과도 견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노승[백운화상]이 말한 무심(無心)은 세간(世間)의 저 ‘목석(木石: 土木瓦石)’같이 경직되어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無知) 그런 무심이 아닙니다! 털끝만한 차이가 있어도 천리(千里)나 벌어지는 것이니 신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세히 살피고 또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sup>49)</sup>

라고 하였다. 백운화상은 이 설법에서, 불타(佛陀)의 말을 빌어서 ‘無心야말로 세상의 공덕 중 가장 크고 불가사의한 것’이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백운화상이 말하는 無心은 ‘마음에서 그 어떠한 생각(想念)도 일어나지 않는 삼매(三昧)의 경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백운화상의 선사상(禪思想)에서의 핵심은 바로 ‘無心’에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위의 설법에서는 ‘무심에 도달하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곧장 무상보리의 세계로 나아가야 함을 특별히 당부하고 있음을 주목할 수 있다. 즉 ‘말을 해도

어긋나고, 말을 하지 않아도 어긋나니, 일체의 사랑분별(思量分別)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함께 놓아버린(放下着) 마음으로 곧장 나아가는 것’이 바로 무심의 세계(三昧)에 도달하는 방법임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이러한 무심은 세상(世間)의 목석(木石)같이 무디고 아무것도 모르는(無知) 그런 무심은 아니다’라고 특히 경계하고 있다.

그리하여 백운화상이 말하는 무심이란, ‘마음에서 그 어떠한 상념(想念)도 없어야 비로소 들어갈 수 있는 경지, 즉 모든 생각이 다 끊어진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능숙한 경지의 삼매(三昧)인 무심’을 강조하고 있다.

여섯째, 백운화상이 말하는 ‘無心’에 도달하는 방법은 <홍성사 입원 소설>에서 다시 제시하는 방안이 있다.

방거사(龐居士)<sup>50)</sup>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바라는 바는, 오로지 모든 있는 것(諸所有)은 비우고(空), 빈 것(諸所無)은 채우지 말라.” 이 두 구절(句節)만 깨치면 평생의 공부(一生參學)를 마칠 것이오, 그런 고(故)로 만물(法)도 본디 만물이라 할 것이 없고(無法), 마음(心) 또한 마음이라 할 것도 없어서(無心), 만물과 마음이 함께 비게 될 것이니, 이것이 참된 모습(眞實相)입니다.<sup>51)</sup>

48) ‘나가(那伽)’는 고대 인도어 ‘nagar(나가르)’의 소리말이다. ‘용’ 또는 ‘코끼리’라는 말로써 부처를 상징한다. 즉 이 용어는 禪家에서는 ‘大禪定’을 의미함.

49) “示衆云 山僧頃年 遊歷江南江北 但有善知識 無不參見 是諸善知識 誨示於人 或以趙州無字 或以萬法歸一 或以父母未生前面目 或以舉心外照 攝心內照 或以澄心入定 終無異說 末上尋參 霞霧山天湖菴石屋老和尚 許多日侍立左右 只學得箇無念眞宗 圓悟如來無上妙道 此道 不可以有心求 不可以無心得 不可以言語造 不可以寂默通 故云語也 錯默也錯 寂語向上有路在 老僧到這裏 只是口門窄 則此四句無用心處 方始可以提撕此箇消息 佛言 世出世間功德 無如無心 功德最大而不可思議 不見釋迦老子 在般若會上 問文殊師利菩薩云 汝入不思議三昧否 文殊云 不也世尊我即不思議 不見有心能思議者 云何而言入不思議 三昧我初發心 欲入此定如今思惟 實無心想而入三昧 如人學射 久習則巧後 雖無心以久習 故箭發皆中 我亦如是 初學不思議三昧 繫心一緣 若久習成就 則更無心想 常與定俱得到這介田地 方始可說那加常在 定無有不定時 所以佛說 無心功德 直是殊勝 直是無較量處 今說無心 非如世間土木瓦石 頑然無知之無心 差之毫釐 失之千里 不可不諦 審思之諦思之.”(釋璨(錄) 1990, 649)

50) 마조도일(709-788)의 유발(有髮)제자로, ‘龐蘊(방은)’이라는 거사를 지칭함. 마조도일의 가르침을 받고 크게 깨침.

라고 하였다. 즉 백운화상은 '우리의 마음에서 오로지 모든 탐욕이나 집착 등 있는 것(諸所有)은 모두 비우고, 그 빈 마음은 채우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리하면 '마음 또한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어서(心亦無心), 만물과 마음이 함께 비게 되면 그것이 바로 무심의 참된 모습'임을 강조하고 있다.<sup>52)</sup> 여기에서 우리는 백운화상의 無心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마음이라 할 것도 없음'으로 옮겨도 무방함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무심에 도달하는 방법'은 <홍성사 입원 소설>에서 관련 설법을 더 찾아볼 수 있다. 즉,

그대들은 나에게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가? 그대들이 부처가 되고 싶다면[깨닫고자 한다면], 일체의 불법(佛法)을 모두 배울 필요도 없으니, 오직 구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것을 배우시오!  
 구하지 않으면 마음이 생기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면 마음이 멸하지 않으니, 생기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그것이 바로 부처[깨달음]입니다!  
 그런데 그대들은 무엇 때문에 마음이 곧 부처이고 부처가 곧 마음인 것은 알지 못하고 부처로써 부처를 찾으면서 이리 저리로 이렇듯 헤매고 들었으시오?<sup>53)</sup>

라 하여, 마음에서 그 무엇도 더 이상 구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無心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하여 구하지 않으면 마음이 생기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면 마음이 멸하지도 않으니, 그것이 곧 '깨달음(佛)'

이라고 다시 한 번 더(再次)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백운화상이 말하는 무심이란 '오직 구하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마음에서 그 무엇도 구하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는 것'의 의미를 순수한 우리말로 번역할 때 '구하거나 집착하는 마음씀이 없음(無心)'이라 옮길 수 있으므로 이것이 바로 '無心'임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하여 백운화상의 無心을 순수한 우리말로 옮길 때 '마음씀이 없음'이라고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일곱째, 바로 이러한 '無心'을 올바르게 깨닫기 위한 공부인 참학(參學)을 하기 위해서는

'깨달음의 공부(參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꼭 화두(話頭)에 대하여 반드시 묻고 배워야 할 필요가 없는 것, 이것이 참학(參學)입니다! 화두에 대해 꼭 이리저리 충고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 이것이 참학입니다! 반드시 대어(代語)<sup>54)</sup>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 이것이 참학입니다! ..... (중략) ....  
 참으로 진실하게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그 공부가 진실해야 하고, 그 깨달음이 진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진실한 공부이며, 어떤 것이 진실한 깨달음인가?  
 하루 일상생활의 사위의(四威儀: 行住坐臥) 속에서 '생사의 큰일(生死大事)'을 생각하되, 온갖 의식활동(心意識)을 벗어나서 성인(聖人)의 길을 참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씀이 없음(無心)'과 '함이 없음(無爲)'을 배우고, 이를 면밀하게 길러나가면서 한결같이 사념(念)도 없고 어둠지도(不昧) 않다면, 마침내 아무데도 의지하지 않는 '그윽한 경지(冥然地)'

51) “示衆 老龐公云 但願空諸所有 慎勿實諸所無 只了得這兩句 一生參學事畢 以故法本無法 心亦無心 心法兩空 是真實相。”(釋璨(錄) 1990, 652)  
 52) 여기에서 우리는, 禪家は 물론 깨어있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깨우치고자 하는 그 '마음'에 대하여, '마음을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다'라는 바로 그러한 '무심'이 곧 백운화상이 말하는 무심의 實體임을 알 수 있다.  
 53) “示衆云 汝等諸人 就我求覓介什麼 汝若欲成佛 一切佛法 總不用學 唯學無求無着 無求即心不生 無着即心不滅 不生不滅即是佛 汝等爲甚麼 不知心即是佛 佛即是心 將佛覓 江西湖南又伊麼去。”(釋璨(錄) 1990, 651)  
 54) 代語: 公案(話頭)에 대하여 스승이 대신 해석해 주는 것.

에 이르게 되리니, 그러면 저절로 도(道)와 합일(合一)할 것이요, 옛사람의 말에도 “무심(無心)해야만 비로소 ‘본래의 나(本來人)’를 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sup>55)</sup>

라 하였다. 이 설법에서 백운화상은 ‘참학(參學: 깨달음의 공부)’이라는 것은, 반드시 화두(話頭)에 대하여 묻고 배워야 할 필요도 없이, 기필코 대어(代語)를 해야 할 필요도 없이, 다만 “일상 생활 속에서 생사(生死)의 큰일(大事)을 생각하되 ‘마음씀이 없음(無心)’과 ‘합이 없음(無爲)’을 배우고, 이를 면밀하게 길러나가면서 그 극한 경지에 도달하기만 하면 드디어 도(道)와 합일(合一)할 것”이라 강조함으로써, 오로지 ‘無心’만이 깨달음에 도달하는 길임을 일깨워주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사항이 보인다. 그것은 곧 백운화상이 제시하는 無心禪은 ‘화두나 대어 등 그 무엇도 필요 없이, 오직 無心만을 면밀하게 길러나가면 깨달음(道)에 이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무심선과 화두선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덟째, 그렇다면 백운화상이 깨달음(證得) 무심은 달마선종(達磨禪宗)에서 표방하는 ‘直指人心 見性成佛(직지인심 견성성불)’<sup>56)</sup>이나

육조혜능이 주창한 ‘識心見性(식심견성)’<sup>57)</sup>과는 그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백운화상은 無心을 비롯하여 ‘모든 부처들이 이룬 깨달음(諸佛阿耨菩提)’<sup>58)</sup>과 달마조사의 ‘직지인심 견성성불’ 및 ‘정법안장, ‘본지풍광’ 등등을 통틀어 ‘진여의 성품(眞如之性)’이라 표현하면서 설법한 법문이 있다. 즉

진여의 성품(眞如之性)<sup>59)</sup>은 본디 저절로 원만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 이것을 ‘정법안장 열반묘심(正法眼藏 涅槃妙心)’<sup>60)</sup>이라 하기도 하고, ‘본지풍광 본래면목(本地風光 本來面目)’<sup>61)</sup>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부처의 위없는 깨달음(阿耨菩提)이며 중생들의 큰 근본 바탕입니다.

그러나 중생들은 이것을 매일 매일 사용하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니, 그 까닭은 의식으로도 알 수가 없고 지혜로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상계(天上界)와 인간계(人間界) 및 못 생명(羣生)에서부터 부처와 조사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중생들은 이를 쌓아 두고도 눈이 어두워 억울하게 윤회의 괴로움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반면에 부처의 깨어있는 성품(諸佛覺性)은 어둡지 않아 본디부터 보리(菩提)를 깨달아서 <위없는 깨달음([無上正]等正覺)>을 이루고 있으니, 범부와 성인은 비록 다르지만 그 불가사의(不可思議)한 것은 꼭 같습니다(一也). ..... 석가세존 .... 달마대사는 .... 문자를 세우지 않고(不立文字) 교법 밖에 따로 전하여(教外別傳) ‘곧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直指人心: [直指人心])’<sup>62)</sup> 자기의 성품을 꿰뚫어 보아 부처

55) “示衆云 夫參學事 作麼生 參學者 不必學問語是參學也 不必諫語是參學也 不必代語是參學 ..... 若也眞實參學者 參須實參 悟須實悟 始得 且作麼生是實參實悟耶 於二六時中 四威儀內 以生死大事爲念 離心意識凡聖路 學以無心無爲 綿密養之 常常無念 常常不昧 了無依倚 到冥然地 自然合道 不見古人云 無心方見本來人.”(釋璨(錄) 1990, 652)

56) 사람의 마음을 곧장 바로 가리켜, 자기의 성품을 꿰뚫어 보아 부처가 됨[깨달음을 얻음].

57) 마음을 알아 성품을 봄[깨달음을 얻음].

58) 아록보리(阿耨菩提): 아록다라삼막삼보리(阿耨多羅三藐三菩提)의 준말. 無上正等正覺. 부처가 깨달은 올바른 깨달음을 의미.

59) 眞如: 無上正等正覺(위없는 올바른 깨달음)의 내용; 일체 존재의 本性 = 自性 = 一心 = 마음.

60) 『大梵天王問佛決疑經』에 나오는 말(용어)로써, ‘깨달음의 절묘한 마음’을 일컬으며 곧 ‘佛心’을 의미한다. ‘열반’은 깨달음의 청정한 경지를 의미하고, ‘묘심’은 말로 하기 어려운 현묘한 마음을 일컫는다.

61) ‘본지풍광’은 ‘본래면목’이라고도 함. 즉 ‘자기의 본래 모습’, ‘인간이 본래 갖추고 있는 진실한 모습’을 일컫음.

(깨달음)가 됨을 전하였습니다. 이 '곧장 가리킨 마음(直指底心)'이라는 것은 오직 '평상시의 일없는 마음(平常無事底心)'일 뿐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비밀스런 견해(玄解)나 이치(義路)가 없습니다. 마음씀이 없음(無心)과 따로 하는 일이 없음(無爲)에 딱 들어맞으면서(契合) 모든 조화를 꾸미는 하늘의 기밀(天機)이 저절로 펼쳐지니, 어떠한 것에도 구애받지도 않고(無拘) 집착할 것이 없습니다(無執). 머뭇고(靡住) 집착이 사라지면(匪着) 그 덕은 천지(天地)와 더불어 같고, 그 밝음은 해와 달과 함께하여, 털끝만한 견해의 차이도 없이, 오직 호탕(浩蕩)하여 크게 통하게 될 것입니다.<sup>63)</sup>

라 하였다. 즉 '진여의 성품(眞如之性)'은 범부와 성인 등 못 생명들이 모두 이 힘을 받아 누구나 갖고 있으면서도 다만 범부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이는 곧 '곧장 가리킨 마음(直指底心: 直指人心)'이며 바로 '평상시의 일없는 마음(平常無事底心)', 즉 평상심의 無心임을 설파하고 있다. 따라서 '직지인심'은 '진여의 성품'이자 동시에 '평상심(平常心)'이면서 또한 '無心'임을 입증하고 있다.

아홉째, 백운화상은 바로 위와 같은 '무심의 깨달음'에 대하여, 이문화의 깨달음에 대한 기

록을 인용하면서,

이문화(李文和) 도위(都尉)는 석문자조(石門慈照)<sup>64)</sup> 총선사(聰禪師)를 참례한 뒤 임제종의 종지(宗旨)를 깨닫고 남긴 계송에서, “도(道)를 배우려면 모름지기 무쇠같은 사람(鐵漢)이어야 한다. / 마음머리(心頭)에 손길 닿자마자 곧장 판단하여 / 위없는 보리로 곧바로 나아가고 / 일체의 시비에는 상관치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참으로 진실된 말입니다. 달마조사께서 곧바로 가리킨 핵심도 이 말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처럼 '곧장 가리킨 마음(直指底心)'은 어떤 뛰어난 해석(玄解)이나 풀이(義路)도 필요 없으며, 오직 평상시의 일없는 마음(平常無事之心)으로 온갖 이치(天機)가 저절로 열리며 아무런 걸림(拘) 것이나 움켜쥘(執) 것도 없으며, 머뭇(住)도 집착(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털끝만한 결함도 없습니다.

그대들(汝等)도 이 말을 명심하여 일상생활 중에서 몸과 마음을 놓아버리고(放捨身心: 放下着) 다만 스스로 '마음씀이 없음(無心)'이기만 하면 저절로(自然) 깨달음(現成) 것입니다.<sup>65)</sup>

라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백운화상이 말하는 무심은 마음이나 대상(對象)에 대하여 어떤 해석을 붙이거나 또는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

62) 위 인용문의 原文에는 '直指示心'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直指人心 見性成佛'은 禪家에서 굳어진 용어(成語)이기 때문에, '直指人心'이라고 보아야 할 필요도 있음. '敎學을 설하지 않고 곧바로 心性을 明示하고, 그것을 徹見( 꿰뚫어 봄)하여 부처가 된다(깨달음을 얻음)'는 의미.

63) “上堂 眞如之性 本自圓成 ..... 是稱正法眼藏涅槃妙心 亦謂本地風光本來面目 是諸佛阿耨菩提 是衆生之大本 亦不離日用 衆生日用而不知 不可以識識 不可以智知 然自天人羣生至於佛祖 皆承渠力 但以衆生 蘊此以冥昧 枉受輪迴 而諸佛覺性不昧 久證菩提成等正覺 而凡聖雖殊 其不思議一也..... 世尊釋迦 ... 是故達磨 ... 不立文字 敎外別傳 直示人心 見性成佛 只這直指底心 只是平常無事底心 無許多玄解義路 契合無心無爲 天機自張 無拘無執 靡住匪着 與天地齊德 日月合明 無容入毫髮見刺 唯蕩蕩然大通之.”(釋璨(錄) 1990, 645)

64) 石門慈照: 임제종의 곡은운충(965-1032)을 지칭함. 출가하여 首山省念(926-993)에게서 현오(玄奧: 깊은 깨달음)를 얻음. 곡은산에서 머물면서 임제종의 종풍을 널리 선양함. 시호는 慈照. 어록으로 『石門山慈照禪師鳳巖集』 1권이 있음.

65) “示衆 昔李文和都尉 參石門慈照聰禪師 悟臨濟宗旨 有偈曰學道須是鐵漢 着手心頭便判直趣無上菩提 一切是非莫管 誠哉是語也 達磨直指之要 無出此也 只這直指底心 更無許多玄解義路 只是平常無事之心 天機自張 無拘無執 匪住匪着 與天地齊德 日月合明 無容入毫髮見刺 唯蕩蕩然大通之 契合無心無爲無事 若立纖芥能所 是非即隔礙 永不通透 都尉雖是俗漢 宛有丈夫之志 俗儒尚曰如是 況衲子乎 汝等當事斯語 二六時中放捨身心 但自無心 自然蓋天蓋地 觸處現成 觸處現成.”(釋璨(錄) 1990, 650-651)

는 별도의 노력도 필요 없이, “일상생활 중에서 몸과 마음을 놓아 버리고(放捨身心: 放下着) 다만 無心(마음씀이 없음)<sup>66)</sup> 하기만 하면 저절로 깨닫는다”는 점을 명시(明示)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sup>67)</sup> 특히 백운화상은 달마조사가 가르침의 핵심인 ‘直指人心 見性成佛’도 위 이 문화 계승의 내용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지적(指摘)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방하착’하면서 그저 無心하기만 하면 선종의 요체(要諦)인 깨달음에 온전하게 계합(契合)할 수 있음을 본인의 경험에 입각하여 단언(斷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68)</sup>

요컨대, 백운화상이 말하는 ‘無心’은 1) ‘평상시의 일없는 마음’을 의미하며, 이는 곧 ‘진여(깨달음)의 성품’이면서 동시에 달마조사가 말하는 ‘직지인심 견성성불’ 및 석가모니(佛陀)의 ‘내려놓음(放下着)’ 계승에 계합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이 무심은, 우리의 마음에서 ‘모든 있는 것은 비우고, 빈 것은 전혀 채우지 않아서 텅 비어 있는 마음’이 되었을 때, 바로 그 마음이 곧 無心임을 알 수 있다. 2) 백운화상의 無心에는 ‘구하거나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음’, 즉 방하착이 전제(前提)되어 있다. 즉, 백

운화상의 無心은 ‘내려놓음의 無心’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백운의 무심은 ‘평상심에서 이치가 저절로 열리고, 걸리거나 움켜쥘 것도 없어서, 구하거나 집착하는 마음씀이 없음’이라는 無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無心을 특히 강조한 백운화상의 무심선은 달마선종이나 육조혜능의 선법(禪法) 및 임제종 조사선의 본질을 가장 명확하게 계승하여 밝힌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sup>69)</sup>

### 3. 「직지」 상권 ‘과거7불’에 표방되는 주제

본 장에서는 백운화상이 「직지」 상권을 편찬할 때 채택된 ‘과거7불’의 계승(偈頌) 중에서 ‘무심’의 개념과 밀접하거나 유사(類似)하다고 판단되는 요어(要語: key word) 및 주제(주제명 표목: subject heading)가 있는 계승을 선정하고, 이들 계승의 내용을 <표 1>과 같이 제시한 후, 그 내용과 백운화상의 무심과의 관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거7불의 계승

66) 여기에서 말하는 무심이라는 것은, 곧 ‘한 생각(一念)도 일어나지 않고 앞뒤의 사이가 끊어지면서 전혀 기댈 곳이 없어지면, 그윽하고 깊숙한(冥然)한 경지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 갑자기 삼천대천세계가 온통 하나의 자기일 뿐, 몸과 마음이 하나(身心一如)로서 몸 밖에 따로 山河大地·밝고 어두움(明暗)·현상과 비어있음(色空)·범속함과 거룩함(凡聖)이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는 것’임을 파악할 수 있다.

67) 다시 말하여, “무심선(無心禪)은 그 어떤 방법이나 노력을 거칠 필요도 없이, 있는 그 자리에서 견문각지(見聞覺知)를 통하여 삶의 본질을 드러낸 선법이며, 무심선법이야말로 여러 선법 가운데서 가장 우수하고 고준(高峻)한 선법이다(무비 2011(上), 18)”라고 함을 주목할 수 있다.

68) 이는 ‘1353년 1월 17일의 깨달음’에서 이미 백운화상의 ‘無心’을 통한 깊은 깨달음의 경험을 제시하고 천명한 바 있다.

69) 그리하여 “無心이라는 것은 안이나 밖을 향한 초월이 아니라, 모든 소리와 모양이 갖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밝게 읽어내는 힘을 말함이니, 이것은 백운의 가르침이 모든 있음을 끌어안고 일어서는 뿌리이기도 하다. 이러한 백운의 독특한 禪風을 두고 혹 조동선(曹洞禪)의 넘새가 없지 않다고 하지만, 이는 대혜(大慧: 1088-1163)로부터 시작하여 당시 크게 유행하던 간화선 수행에서 생길 수 있는 폐단을 막고 줄여, 임제선의 뿌리를 지키기 위해 들어 보이는 환기장치로 보아야 할 것이다(무비 1996, 13).”라는 관점도 주목할 수 있다.



〈표 1〉 『직지』 上卷 중 '과거칠불' 계송에 표방되는 주제 및 요어

	구분	인물	주제	요어	비고
1	過七 1	비바시불(毘婆尸佛)	환술로 생긴 사람의 의식은 본래 없으니 <sup>70)</sup>	心識本來無 ≡ 無心	*무심선의 淵源 *인간 존재의 문제
2	과칠 2	시기불(尸棄佛)	몸이란 물거품 같고 마음이란 바람 같은 것 <sup>71)</sup>	幻出無根無實相: 幻無	白雲 註釋 있음
3	과칠 3	비사부불(毘舍浮佛)	대상이 없으면 마음도 없음에 <sup>72)</sup>	心亦無 ≡ 無心	백운 주석 있음
4	과칠 4	구류손불(拘留孫佛)	몸도 마음도 그 본성이 텅 비어 있음에 <sup>73)</sup>	身心本性空 ≡ 心空	백운 주석 있음
5	과칠 5	구나함모니불 (拘那含牟尼佛)	부처는 몸을 보이지 않나니 <sup>74)</sup>	無佛	*사람이 곧 부처 *人佛思想
6	과칠 6	가섭불(迦葉佛)	몸과 마음은 환영(幻影)으로 생긴 것이니 <sup>75)</sup>	從本無生無可滅: 無生	
7-1	과칠 7	석가세존(釋迦世尊)	보거나 듣지 아니하다 <sup>76)</sup>	對境無心	對機說法
7-2	과칠 7	석가세존(釋迦世尊)	방하착(放下着: 내려놓아라) <sup>77)</sup>	放下着: 無可捨處 ≡ 無心 <sup>78)</sup>	참선수행의 要諦: 無心の 방법론

중에서 '心識無, 幻出無根, 心空, 對境無心, 放下着'<sup>79)</sup> 등의 요어가 포함되어 있는 계송들

70) “몸은 형상이 없는 곳으로부터 태어난 것이 / 마치 환술로 온갖 형상들을 만들어 낸 것과 같다. / 환술로 생긴 사람의 의식은 본래 없으니 / 죄도 복도 모두 텅 비어 머무는 바가 없다(身從無相中受生 猶如幻出諸形相 幻人心識本來無 罪福皆空無住所).”

71) “온갖 선한 일을 하는 것도 본래 환술이며 / 여러 가지 악한 일을 하는 것도 또한 환술이다. / 몸이란 물거품 같고 마음이란 바람 같은 것 / 환술에서 나온 것은 근본도 없고 실상도 없다.”

72) “四大(地水火風)의 요소를 빌려서 이 몸을 삼았고 / 마음은 본래 생기는 것이 아닌데 대상으로 인하여 존재한다. / 만약 대상이 없으면 마음 또한 없음으로 / 죄도 복도 환술처럼 생겼다가 사라지도다.”

73) “이 몸이 실체가 없다고 보는 것은 부처의 견해이며 / 이 몸이 환영과 같다고 아는 것은 부처의 아는 것이다 / 몸도 마음도 그 본성이 텅 비었음을 알았다면 / 이 사람이 부처와 무엇이 다르랴.”

74) “부처는 몸을 보이지 않는다는 그 얹이 곧 부처이니 / 만약 그 얹이 실답다면 부처도 없다. / 지혜로운 이는 죄의 성품이 공(空)함을 능히 알아서 / 탁 트인 마음으로 생사(生死)를 두려워하지 않네.”

75) “일체의 중생은 성품이 청정(淸淨)하여 / 본래부터 태어남도 없고 소멸함도 없네. / 이러한 몸과 마음은 환영(幻)으로 생긴 것이니 / 환영에는 죄도 없고 복도 없다네.”

76) ‘석가세존은 수레가 지나가는 것을 보거나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 선정에도 듣지 아니하고 / 잠에 들지도 않았다. / 세존은 깨어(覺)있으면서도 보거나 듣지 아니하였다.’  
백운화상은 바로 이 계송 아래에 “이를테면(如云), 몸과 마음은 토목(土木)과 같고, 듣고 보는 것은 눈멀고 귀먹은 이와 같다라는 말과 같다”라는 주석(註釋: 細註)을 남겨 놓았다.

77) 부처님(佛)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대로 하여금 두 손에 들고 있는 꽃을 ‘내려놓아라.’고 한 것이 아니다 / 지금 마땅히 밖으로는 육진(六塵: 중생의 마음을 더럽히는 여섯 가지, 즉 ‘色·聲·香·味·觸·法’)과 안으로는 육근(六根: 眼·耳·鼻·舌·身·意(눈, 귀, 코, 혀, 몸, 뜻))과 그 중간으로는 육식(六識: 6근에 의하여 대상을 깨닫는 여섯 가지 작용, 즉 眼識·耳識·鼻識·舌識·身識·意識)을 일시에 다 내려놓고 / 더는 버릴 것이 없는 경지에 이르면 / 이것이 그대의 생사를 벗어나는 경지이니라(佛言 吾非令汝 放下手中花 汝今當放下 外六塵 內六根 中六識 一時放下到無可捨處 是汝脫生死處).”

78) 방하착: 無可捨處(더 이상 버릴 것이 없는 경지) ≡ 無心 = 生死를 벗어나는 경지 = 해탈의 경지 = 成佛 = 부처(覺者): 참선(無心) 수행의 要諦: 無心の 방법론.

79) 이와 같은 용어를 無心과 밀접한 키워드로 선정한 이유는, ‘無心’이라는 용어가 『전등록』 등의 祖師禪에서 보이는 사례는 8세기 중기의 司空本淨(667-762)과 남양혜충(?-775) 및 馬祖道一(709-788)의 시대부터 임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아함경』 등에 대한 漢文(당시 중국어) 번역 당시에는 後代의 조사전에서 ‘無心’이라는 용어의 개념이 다양한 단어로 표현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을 선정하고, 이들 계송과 관련한 사항들을 논술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직지」는 불교의 선맥(禪脈) 중 부처와 조사(佛祖師)들의 혈맥이라 할 수 있는 계송 등을 중점적으로 발췌하여 편찬한 것이다. 그 중 「직지」 상권의 서두(序頭)에 수록된 계송들, 즉 ‘비바시불’부터 ‘가섭불’까지의 계송들은 『祖堂集(조당집)』<sup>80)</sup> · 『傳燈錄(전등록)』 · 『五等會元(오등회원)』<sup>81)</sup>에서 채택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비바시불은 『장아함경』 중 「대본경」에 등장하는 부처로, 석가모니 이전의 과거7불 중 제1부처이다. 이 계송에서는 ‘환술로 생긴 인간의 의식(心識)은 본래 없는 것(幻人心識本來無)’이라 하여, 모든 종교와 철학의 근원적인 과제라 할 수 있는 ‘인간 존재의 문제’부터 철저히 파고들어 지적하고 있다. 그리하여 백운화상은 중국 선불교의 혈맥을 타고 곧바로 과거7불의 제1부처의 계송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마침내 그 계송의 핵심과 무심(無心)을 연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과거7불의 제2불인 시기불의 “몸이란 물거품 같고 / 마음이란 바람 같은 것 / 환술에서 나온 것은 근본도 없고(幻出無根) / 실상도

없다(無實相)”는 계송은 육조혜능이 깨달은 「금강경」 四句偈(사구계) 중 한 구절을 연상케 한다.<sup>82)</sup> 이 계송의 내용은 비사부불이나 구류손불의 계송, 즉 ‘대상이 없으면 마음도 없음’ · ‘몸도 마음도 그 본성이 텅 비어 있음에’의 계송 핵심이라 할 수 있는 ‘空心’은 곧 백운화상의 無心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 계송에는 모든 존재를 공(空: 실체가 없음)으로 보는(觀) 입장인 ‘불교의 공관사상(空觀思想)’이 짙게 녹아 스며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관사상은 곧 ‘선악 및 몸과 마음(心身)의 실체도 모두 그 본성이 텅 비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몸과 마음 및 산하대지(山河大地) 등도 모두 텅 비어 없음을 알면 그것이 곧 깨달음(부처)의 경지’(무비(上) 2011, 34. 참고)라는 것이다. 즉 누구라도 자신의 몸과 마음의 본성이 텅 비어 공(空)한 것임을 알기만 하면 부처 즉 ‘깨달음(覺: 佛)’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특히 「직지」에서 백운화상은 과거7불 중 ‘시기불’과 ‘비사부불’ 및 ‘구류손불’의 계송의 끝에 소자쌍행(小字雙行)으로 “如云”으로 시작되는 백운화상의 세주(細註: 註釋)를 직접 남기고(記入)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sup>83)</sup> 즉 백운화상은 이와 같

80) 全20卷. 952년 南堂 保大10年, 泉州 招慶寺의 靜(정) ·筠(균) 두 禪師가 펴낸 책으로, 과거7불과 초조 마하가섭에서 육조혜능, 淸原 문하 제8세 설봉의존의 법손, 南嶽 문하 제7세 임제의현의 법손까지 모두 253인의 전기 및 법어, 전등 상승의 차례를 기록함. 「경덕전등록」보다 50여년 빨리 성립된 현존 최고(最古)의 종합 선종 사서(史書).

81) 全20卷. 영은보제(1179-1253)가 1352년에 간행. 「경덕전등록」 · 「천성광등록」 · 「건중정국속등록」 · 「연등회요」 · 「가대보등록」으로 이루어진 오등록을 개편하여 하나로 종합한 종합적인 선종 통사.

82) “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 / 如露亦如電 應作如是觀(일체 현상계의 모든 생멸 법은 /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 같으며 / 그림자 같으며 이슬과도 같고 번개와도 같으니 / 응당 이와 같이 관해야 한다).”

83) ① 시기불 계송에 관한 細註: ‘이러테면, 환술로 생긴 것은 근본이 없으니 / 그것이 곧 실상이며 / 허망을 알면 곧 진실이다’라는 말과 같다(如云 幻起無根 卽實相 是了妄即眞).

② 비바시불 계송에 관한 세주: ‘이러테면, 마음은 본래 형상이 없으나 / 대상에 의하여 생겨나나니 / 대상의 본성도 또한 텅 비어 없으니 / 마음과 대상이 한결 같다’라고 한 말과 같다(如云 心本無形 托境方生 境性亦空 心境一如).

③ 구류손불 계송에 관한 세주: ‘이러테면, 몸과 마음은 같은 것이며 / 몸 밖에 다른 것은 없으니 / 산하대지가 어디 있겠는가’라는 말과 같다(如云 心身一如 身外無餘 山河大地 甚處得來).

은 주석들을 통하여 위 계송들을 무심의 경지와 직·간접적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직지」에서는 과거7불이자 동시에 현재 현겁(賢劫)의 제4불인 석가모니의 계송 중 무려 6개의 계송을 수록하고 있다. 여기에서 무심과 특별하게 밀접한 계송은 '보거나 듣지 아니하다'와 '내려놓아라(放下着)'를 주목하여 볼 수 있다. 특히 석가모니의 '보거나 듣지 아니하다'의 계송에 대하여,

불타(釋迦牟尼)의 중생들을 위한 다종다양한 대기설법 중에서 전통적인 선불교에서 매우 즐겨하는 대경무심(對境無心)의 삶을 표현하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즉 세상의 그 어떤 문제들도 모두가 내가 문제시함으로부터 비로소 문제로 등장하는 것이다. 세상의 주인은 나 자신이므로 좋은 문제도 나쁜 문제도 모두가 내 문제이다. 그러므로 내가 문제시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선불교(禪佛敎)의 입장이다. 그래서 문제 해결의 열쇠는 곧 나 자신에게 있고, 그것은 내가 無心하면 모든 문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다 해결이 된다는 뜻이다(무비(上) 2011, 53).

라 하여, '외부 경계에 대한 無心(對境無心)의 삶'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경우도 주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보거나 듣지 아니하다'의 계송 내용은, 사물이나 외경(外境)을 바라보는 무심선의 상황을 선불교의 일반적인 사항으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백운화상의 무심선에 대하여 선불교의 일반적인 문제로 접근하여 그 보편성을 논술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넷째,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지」에 수록된 석가모니의 '방하착' 계송 내용은 '마음

밖으로는 6진(塵)을, 마음 안으로는 6근(根)과 그 중간의 6식(識) 등을 한꺼번에 모두 다 내려놓고 더 이상 버릴 것이 없는 경지'를 말하며, 이것은 곧 '우리의 마음에서 모든 집착과 욕망이 제거된 경지(境地)인 무심(無心)'과 일치한다. 게다가 이는 곧 '생사(生死)를 벗어나는 경지'임과 동시에 참선 수행의 요체(要諦)이며 동시에 '무심에 도달하는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방하착' 계송의 내용은 백운화상이 말하는 무심의 개념과 가장 융합됨을 알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방하착'은 중국 선불교에서 조주(趙州)선사의 「조주록」에 수록됨<sup>84)</sup>으로써 한국의 불가(佛家)에서도 유명한 화두(話頭) 중의 하나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화두의 연원이 바로 석가모니의 계송에서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백운화상이 말하는 무심은 불교의 교조(敎祖)인 석가모니의 계송에 귀결(歸結)됨을 파악할 수 있다.

요컨대, 「직지」 상권의 '과거7불' 사항의 계송에 나타나는 '모든 존재를 공(空: 실체가 없음)으로 보는(觀) 입장인 이른바 공관(空觀)의 사상'이 백운화상의 '무심'에 용해(溶解)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무심에 도달하는 방법론으로써 석가모니가 제시한 '방하착(放下着: 내려놓아라)'을 특히 주목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는 것은 곧 우리의 마음에서 욕망과 집착을 모두 여의 상태인 '무심'을 말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곧 '생사를 벗어나는 경지'이며, 생사를 벗어나는 경지는 바로 '해탈의 경지'를 일컫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곧 '성불(成佛) 즉 부처(깨달음)에 이르

84) “問 一物不將來時如何 師云放下著” 『趙州錄』 中.

는 길'임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백운화상의 무심(無心)은 석가모니의 계송인 '방하착'에 귀착(歸着)됨을 파악할 수 있다.

#### 4. 「직지」 상권 '서천 제6조사'까지 표방되는 주제

본 장에서는 백운화상이 「직지」 상권을 편찬할 때 채택된 '서천 제6조사'까지의 계송(偈頌) 중에서 '무심'의 개념과 밀접하거나 유사(類似)하다고 판단되는 요어(要語: key word) 및 주제표목(subject heading)을 선정하고, 이들 계송의 내용을 <표 2>와 같이 제시한 후, 그 내용과 백운화상의 무심과의 관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천조사의 계송 중에서는 '無心 · 非心 · 無法' 등의 요어가 추출되었으며, 이들 계송과 관련한 사항들을 논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천 제1조 가섭존자는, 석가모니로부터 선종(禪宗)의 정맥(正脈: 法脈)을 이어받

은 마하가섭을 의미한다. 즉 마하가섭의 계송에 서는

법을 법답게 하는 본래의 법은 / 법도 없고 법 아닌 것도 없음이니 / 어찌 하나의 법 가운데 / 법이 있고 법이 아닌 것도 있으랴(法法本來法 無法無非法 何於一法中 有法有不法)(김월운 2008, 68-69).

라 하였다. 이 계송에서 노래하는 '법(法)'은, 그야말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그 진리 그 자체, 즉 '있는 그대로(當處自眞)의 법'을 말하는 것으로 "법을 법답게 하는 본래의 법(法法本來法)"이라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본래의 법에 대하여 굳이 법이라 할 것도 없음으로 "법도 없고 법 아닌 것도 없다(無法無非法)"고 노래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흡사 제2장에서 논술한 바와 같이, '있는 그대로(當處自眞)의 마음'과 관련하여 "마음도 없고 마음이 아닌 것도 없다"는 의미와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그야말로 선종에서 '부처의 깨달음(覺: 佛)'을 언어(言語: 佛經)를 초월하여 '마음법(心法)'으로 전수(傳授)하고 전수(傳受)받는 상

<표 2> 「직지」 상권 중 서천 제6조사 계송까지에 표방되는 주제 및 요어

	구분	인물	주제	요어	비고
1	西祖 1	가섭 존자 ([摩訶]迦葉尊者)	법도 없고 법 아닌 것도 없음이니	無法	
2	서조 3	상나화수 존자 (商那和脩尊者)	마음도 없고 법도 없다	無心 (亦) 無法	一心思想
3	서조 4	우바국다 존자 (優波鞠多尊者)	마음은 생기거나 소멸하지 않는 것	非心 ≒ 無心	
4	서조 5	제다가 존자 (提多迦尊者)	본래의 마음 법을 통달하면 ... 마음도 없고 법도 없다	無心亦無法	法燈의 중요성
5	서조 6	미차가 존자 (彌遮迦尊者)	마음이 마음 아닌 것을 알면	非心	

징적인 계송이라 볼 수 있다.

둘째, 서천 제3조 상나화수 존자와 그의 제자인 '우바국다'와의 대화의 말미에 수록된, 마음(性品)의 불변(不變)에 대한 계송에서

법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니 / 마음도 없고 또한 법도 없네 / 이러한 마음법(心法)을 설할 때에도 / 그 도리(法)는 마음법(心法)이 아니네 (非法亦非心 無心亦無法 說是心法時 是法非心法)(김월운 2008, 75 참고).

라 하여, '법과 마음'을 동시에 부정하는 내용, 즉 이중부정(二重否定)의 개념으로 '마음도 없고 또한 법도 없네'라고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마음은 곧 마음이 아니며, 법은 곧 법이 아니므로, 마음이며 법이라는 즉비(卽非)의 중도적 관점을 견지하라는 뜻이다'(무비(上) 2011, 71)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전등록』에서 상나화수 존자의 또 다른 계송 중

통달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 / 지극한 성스러움에는 길고 짧음이 없네 / 그대들이 경솔하고 교만한 생각(意)을 버리면 / 빨리 아라한을 얻게 되리라(通達非彼此 至聖無長短 汝除輕慢意 疾得阿羅漢)(김월운 2008, 76 참고).

라 하였다. 위 두 계송을 결합하여 판단하여 보

면, <마음(性品: 一心; 한마음: 法)<sup>85)</sup>을 통달하기만 하면, '마음'도 아니고 '법'도 아닌 성스러운 마음법(心法), 즉 아라한(阿羅漢: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마음(心)을 마음이라 할 것도 없고(無心), 법 또한 법이라 할 것도 없어서(無法), 마음이며 법이라는 마음법(心法)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心·無心·無法·心法 등은 모두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동일한 개념의 유사(類似)한 용어라 볼 수 있다.

셋째, 서천 제4조인 우바국다 존자의 사항에서, 우바국다 존자와 그에게 출가하기를 원하는 향중(香衆)과의 대화<sup>86)</sup> 및 우바국다 존자의 계송에서,

마음은 그 자체가 본래의 마음이니 / 본래의 마음이란 어떤 법이 있는(有法) 것이 아니다 / 법이 있고 본래의 마음이 있다면 / 마음도 아니고 본래의 법도 아니다(心自本來心 本心非有法 有法有本心 非心非本法).<sup>87)</sup>

라 하였다. "출가(出家)라는 것은 '나(我: 存在)'와 '나의 것(我故: 소유(所有)·욕망·집착)'이 없는 것이요, 나와 나의 것이 없으므로 이 마음이 생기거나 소멸하지 않는 것이니(夫出家

85) 一心(마음) 및 인생에 관한 문제는, 임제의현의 유명한 법문인 "태어남이란 어디서 오는 것이며 / 죽음이란 어디로 가는 것인가? / 생(生: 태어남: 삶)이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고 / 죽음(死)이란 한 조각 구름이 흩어지는 것이나니 / 뜬구름은 그 자체가 본래 실체가 없으며 / 죽고 태어나고 가고 오는 일도 그와 같다. / 홀로 한 물건(一物)이 있어서 항상 홀로 드러나 있어서 / 맑고 밝아 태어나고 죽는 일을 따라가지 않네(生從何處來 死向何處去 生也一片浮雲起 死也一片浮雲滅 浮雲自體本無實 生死去來亦如然 獨有一物常獨露 湛然不隨於生死)" 중에서 '一物'은 바로 우리의 마음(一心)을 일컫는 것으로, '一心의 영원성'을 일깨워 주는 부분이다.

86) "그대의 몸이 出家하는가? 그대의 마음이 출가하는가? / '제가 여기에 와서 출가하려는 것은 몸도 마음도 아닙니다.' / 몸도 마음도 아니라면 누가 출가하는가? '대저 출가라는 것은 나와 내 것이 없는 것이요, / 나와 나의 것이 없다는 것은 마음은 생기거나 소멸하지 않습니다. / 마음은 생기거나 소멸하지 않기에 곧 항상(恒常: 永遠)한 道이며, 모든 부처(諸佛)도 역시 그러합니다. / 마음은 형상이 없고 그 본체도 또한 그러합니다.'(夫出家者 無我我故 無我我故 卽心不生滅 不生滅 卽是常道 諸佛亦常 / 心無形相 其體本然)."

87) 原文: 白雲景閑,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木版本(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3-2張.

者 無我我故 無我我故 卽心不生滅)”라 하여 ‘나의 존재’와 ‘나의 소유 및 욕망(내 것)’이 없을 때에 비로소 마음의 불생불멸(不生不滅)을 알 수 있으며, 바로 이것이 도(道)이며 부처의 경지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마음은 저절로 본래의 마음이며, 그 본래의 마음에는 마음뿐이지 그 어떤 법도 없다. 그리고 마음뿐이라면 굳이 마음이라 할 것도 없다. 그렇다면 ‘마음이라는 것’도 ‘마음의 대상(對象)인 법’이라는 것’도 달리 논할 일이 아니다”(무비(上) 2011, 74)라는 관점을 주목하여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바국다 존자의 계송에서 말하는 ‘본래의 마음(本來心)’은 곧 ‘오직 있는 그대로(當處自眞)의 마음’이라서 굳이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는 마음, 즉 非心(마음 아님)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바로 백운화상이 말하는 ‘있는 그대로(當處自眞)의 마음, 즉 마음씀이 없는 무심’과 계합(契合)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서천 제5조 제다가 존자의 계송에서는

본래의 법과 마음을 통달하면 / 법도 없고 법이 아님도 없다네 / 깨달아 마침은 아직 깨닫지 못함과 같나니 / 마음도 없고 법도 없다네(通達本法 心 無法無非法 悟了同未悟 無心亦無法).<sup>88)</sup>

라 하였다. 즉 “본래의 법과 마음을 통달하면 법도 없으며 법이 아닌 것도 없다”는 ‘마음의 실상(實相)’을 말하고 있다. 즉 ‘마음이니 법이니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實在)하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전혀 없는 것도 아니라는 뜻이다. [즉,

마음이란 것은] 없으면서도 있고, 있으면서도 없다는 중도(中道)적 안목으로 이해해야 한다.’(무비(上) 2011, 77)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제다가 존자의 계송에서 ‘깨닫고 난 뒤에는 마음도 없고(無心) 법도 없다(無法)’는 무심의 개념은 바로 ‘없으면서도 있고, 있으면서도 없는 그러한 無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제다가 존자의 계송 끝에 기입된 無心은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 마음씀이 없는 마음’의 無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서천 제6조 미차가 존자의 계송에서는

마음이 없으면 얻을 것도 없으니 / 얻음을 설(說)해도 진실(法)이라 이름 짓지 못하네. / 만약 마음이 마음 아닌 것을 깨닫는다면 / 비로소 마음과 마음법을 알리라(無心無可得 說得不名法 若了心非心 始解心心法).<sup>89)</sup>

라 하였다. 이 계송은 ‘마음의 문제’와 ‘얻음의 문제’를 노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불교에서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실은 마음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얻음도 없다. 『반야심경』의 근본 중지(宗旨)는 무소득(無所得: 얻음이 없음)이다’(무비(上) 2011, 81). 즉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보살들은 마음에 걸림이 없으며, 마음에 걸림이 없으므로 일체의 두려움(恐怖)도 없으니, 뒤바뀌어 멀어졌던 꿈같은 생각(顛倒夢想)도 결국에는 열반(涅槃)이었던 것이기에, 삼세(三世)의 모든 부처들(諸佛)은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다<sup>90)</sup>고 하였다. 위의 계송을 끝에서부터

88) 原文: 백운경한, 『백운화상초록불조지심체요절』, 목판본(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4-1張.

89) 原文: 백운경한, 『백운화상초록불조지심체요절』, 목판본(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4-2張. 이 계송의 번역은 월운화상의 『전등록』에서의 번역사례를 적극 참조하였음(월운, 『전등록』 1 (서울: 동국역경원, 2008), 85. 참고).

90) 『반야심경』 중 “以無所得故 菩提薩陀 … 心無罣碍 無罣碍故 無有恐怖 遠離顛倒夢想 究竟涅槃 三世諸佛 依般若波羅蜜多故 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해석하여 보면<sup>91)</sup> '마음과 마음법(心法)을 알기(解) 위해서는, 마음(心)이 마음 아님(非心)을 깨달아야 하며, '그 마음이 무엇인가?' 하고 얻을 것도 없으면 굳이 법(法)이라 이름 짓지 않아도 되어서, 얻을 것도 없다면 마음도 없다네(無心)'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얻을 필요도 없는 그 마음이 바로 무심(無心)이다'라고 볼 수 있다. 즉, '얻고자 하는 집착의 마음씀 그 자체도 필요 없는 것'은 곧 '마음씀이 없음'이라는 '無心'과 그 의미가 일맥상통한다. 그러므로 백운화상이 말하는 무심은 서천의 미차가 존자의 계송 내용에도 계합함을 파악할 수 있다.

## 5. 결론

이상의 본론에서는 백운화상의 無心에 대하여 서지적인 관점에서 논술하였다.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2장에서는 백운화상의 無心에 관한 깨달음의 핵심(要諦)을 가장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의 사상이 녹아 스며들어 있는(含有) 『백운화상어록』을 주목하고, 이 어록에서 표방되는 무심 관련 내용들을 발췌하여 그 사항들을 분석하여 보았다. 그 결과,

1) '백운화상은 선가(禪家)에서의 마음(心)에 대하여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백운화상은 마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주장자'를 예로 들면서, 참선 수행의 각 단계에서 '주장자(拄杖) ⇒ 有(凡夫界) ⇒

無(聲聞界) ⇒ 幻有(緣覺界) ⇒ 當體即空(菩薩界) ⇒ [(있는 그대로(當體)의] 주장자(拄杖: 禪宗)'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선종에서의 상황적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하여 백운화상은 마음(內心)이나 바깥경계(外境: 對象)에 대하여, 그 어떤 주관이나 견해도 전혀 개입시키지 않고, '오로지 있는 그대로의 사실(事實: fact: 眞相)로 보자'는 관점에서 '주장자를 보면 다만 주장자라고 하듯이, 산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인(當處自眞) 바의 산이요, 물은 있는 그대로의 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백운화상이 제시하는 無心の 개념은 <안의 마음(內心)이나 바깥 경계(外境)에 대하여 일체의 선악·시비(善惡是非) 등에 아예 상관하지 않거나 생각(一念)조차 하지 않는 것, 즉 마음에서 사랑·분별(思量分別)하지 않고 오직 있는 그대로의 진실(當處自眞)로 보는 것>이라 하였다.

2) 백운화상이 드디어 대오(大悟: 覺)하여 석옥화상으로부터 인가(認可)를 받은 바로 그 無心은 "한 생각(一念)도 일어나지 않고 앞뒤의 사이가 끊어지면서 전혀 기댈 곳이 없어지면서 그윽하고 깊숙한(冥然) 경지에 도달함, 즉 나(自己)와 우주(外部世界)가 하나(一如)임을 분명히 보는 것임"을 고증하였다. 바로 이러한 '無心'에 대하여 백운화상은 '모든 생각이 다 끊어져 항상 삼매 속에 있는 경지'라고 설명하면서 "부처(佛陀)의 말씀에도 無心이야말로 세상의 공덕 중 가장 크고 불가사의한 것이다"라고 스스로 증명(自證)하고 있다.

3) 백운화상은 무심에 도달하는 방법으로써

91) 기승전결(起承轉結)이 분명한 계송은, 번역상의 의미를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후미에서 거슬러 올라가면서(逆) 해석하여 보면, 그 의미가 명확하게 통할 때도 있음을 경험으로 알 수 있다.

“[우리의 마음에서] 오로지 있는 것은 비우고, 그 빈 마음은 채우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리하면 “마음을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이, 만물과 마음이 함께 비게 되면, 그것이 바로 참된 모습”임을 강조하고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若欲成佛), 오직 구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것을 배우라(唯學無求無着)”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구하거나 집착하는 마음씀이 없음’이 바로 無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無心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는 ‘마음씀이 없음’으로 옮기는 것이 보다 의미가 뚜렷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백운화상의 無心은 바로 ‘마음을 마음이라 할 것도 없는 빈 마음(心亦無心, 心法兩空: 空心), 즉 구하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는 마음(無求無着心)’임을 파악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구하지 않으면 마음 자체도 생기지도 않고, 집착하지 않으면 마음이 멀어지지 않으니, 생기지도 않고 멀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부처(覺者)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깨달음의 공부(參學)’는 “일상생활 속에서 생사(生死)의 큰일을 생각하되, ‘마음씀이 없음(無心)’과 ‘함은 없음(無爲)’을 배우면서 면밀하게 길러 나가면 드디어 도(道)와 합일함으로써 궁극적인 깨달음(究竟覺)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백운화상의 無心을 달마선종(達磨禪宗)의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리켜 자기의 성품을 꿰뚫어 보아 부처가 됨(直指人心 見性成佛)’ 등의 핵심(要諦)과 비교하여 보면, 백운화상의 無心은 ‘평상시의 일없는 마음(平常無事底心: 平常心)’을 의미하며, “일상생활 중에서 몸과 마음을 놓아버리고(放下着) 다만

스스로 ‘마음씀이 없음(無心)’이기만 하면 저절로 깨달을 것이다”라고 경험적 깨달음을 제시함으로써, 백운화상의 무심선(無心禪)이야말로 육조(慧能) 및 임제 선법의 정통인 조사선(祖師禪)의 핵심은 물론 석가모니 깨달음의 본질을 가장 명확하게 계승하여 밝힌 것임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제3·4장에서는 『직지』 상권 중 ‘과거 7불’ 및 ‘서천 제6조사’까지의 사항에 국한하여, 『백운화상어록』에서 표방되는 無心の 핵심과 밀접하거나 유사한 계송들을 추출하고, 그 내용과 백운화상의 無心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보았다. 그 결과,

1) 『직지』 상권의 ‘과거 7불’의 계송들은 ‘모든 존재를 공(空)으로 보는(觀) 입장인 이른바 공관사상(空觀思想)’이 지배적이다. 백운화상은 『직지』를 편찬하면서 ‘환술로 생긴 인간의 의식은 본래 없는 것(幻人心識本來無)’라는 과거 7불 중 제1불인 비바시불의 계송까지 거슬러 올라감으로써 이 계송과 ‘무심’을 연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백운화상은 ‘無心에 도달하는 방법’으로써 석가모니가 제시한 ‘대경무심(對境無心)’ 및 ‘방하착(放下着)’의 계송들을 『직지』의 서두 부분에 편입한 것을 주목할 수 있다. 특히 ‘방하착’ 계송은 우리의 마음에서 모든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은 상태인 ‘無心’과 일맥상통(一脈相通)하는 계송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방하착’은 ‘생사를 벗어나는 경지’이며, 생사를 벗어나는 경지는 바로 ‘해탈의 경지’를 일컫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곧 ‘부처에 이르는 길(成佛)’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백운화상의 無心은 과거 7불의 석가모니 계송인 ‘방하착’에 귀착(歸着)됨을 파악할 수 있다.



2) 『직지』 상권의 '서천 제6조사'까지의 계송 중 '無法·無心·非心' 등의 요어(要語)가 기입된 계송들은 '있는 그대로 저절로 진실함(當處自眞)'으로 표현되는 '마음의 불변'과 관련하여, "마음도 없고 법도 없다"라는 이중부정의 개념은 '마음은 곧 마음이 아니며, 법은 곧 법이 아니므로, 마음이며 법이다'라는 즉비(卽非)의 중도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또한 백운화상이 말하는 '無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편입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없으면서도 있고, 있으면서도 없는 그러한 마음(心) 및 법(法)' 등은 곧 '더 이상 집착하는 마음씀이 없음(無心)'의 다른 표현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섭존자를 비롯한 미차가존자에 이르는 '서천 6조사'의 계송 내용은 백운화상의 無心과 일맥상통함으로써, 백운화상의 무심선은 달마선종을 넘어 서천조사의 선사상(禪思想)에 연결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요컨대, 백운화상이 제시한 '無心'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백운화상이 제시하는 無心の 개념은 <마음(心)이나 외부경계(外境)에 대하여 일체의 선악·시비(善惡是非) 등을 아예 상관하지 않거나 생각(一念)조차 하지 않는 것, 즉 마음에서 사랑 분별(思量分別)하지 않고 오직 있는 그대로의 진실(當處自眞: fact)로 보는 것>이라 하였다.

둘째, 위와 같은 백운화상의 無心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는 ① '(구하거나 집착하는) 마음씀이 없음', ② '마음이라 할 것도 없음', ③ '마음 없음' ④ '마음을 없게 함' 등으로 해당 계송 등의 문맥에 따라서 적절하게 옮기는 것이 합리적임을 파악하였다.

셋째, 백운화상의 無心은 '평상시의 일없는 마음(平常無事底心: 平常心)'이며 '내려놓음(放下着)' 및 '오로지 있는(번뇌 등) 것은 비우고, 빈 것은 전혀 채우지 않은 無心'이면서 동시에 '깨달음의 성품(眞如之性)'임을 확인하였다. 게다가 이 無心은 달마조사의 '直指人心 見性成佛' 및 석가모니의 '내려놓음(放下着)' 계송에 계합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 無心은 '구하거나 집착하는 마음씀이 없음'으로, 백운화상은 "평상시의 일없는 마음으로 일상생활에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放下着), 다만 '마음씀이 없음(無心)'이기만 하면 저절로 깨달을 것이다"라고 경험적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넷째, 백운화상의 無心을 『직지』에 수록된 '과거7불' 및 '서천 6조사' 등의 계송 내용과 비교분석한 결과, 석가모니의 '방하착' 계송을 비롯하여 과거7불 및 서천조사의 '즉비(卽非)의 중도적 관점' 등의 사상도 견지(堅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無心'에 입각한 백운화상의 무심선은 달마선종이나 육조혜능의 선법 및 임제종 조사선의 본질을 가장 명확하게 계승하여 밝힌 선법임을 파악하였다.

## 참 고 문 헌

- [1] 『高麗史』. 卷54, 志8.
- [2] 『금강반야바라밀경: 금강경』.
- [3] 김월운. 2008. 『전등록』, 1. 서울: 동국역경원.
- [4] 동국대[학교] 역경원, 譯. 1996. 『直指』. 청주: 청주시청.
- [5] 『마하반야바리밀다심경: 반야심경』.
- [6] 無比, 譯註. 1996. 『백운스님 어록』. 서울: 민족사.
- [7] 무비. 2011. 『직지 강설』, 上·下. 서울: 불광출판사.
- [8] 박문열. 1997. 白雲和尚에 관한 연구. 『人文科學論集(청주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7: 323-345.
- [9] 朴文烈, 譯. 1998. 『譯註 白雲和尚語錄』.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 [10] 白雲景閑.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목판본.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所藏).
- [11] 白雲景閑. 1990.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韓國佛教全書, 第六冊.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604-636.
- [12] 白雲景閑 著. 1990. 『高麗 白雲語錄』. 安法山 編譯. [평창]: 靈鑑寺.
- [13] 白雲景閑 著. 『白雲直指: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 李哲教 譯. 우리말 번역본. 미간행 (복사)본.
- [14] 釋璨(錄). 1990. 『白雲和尚語錄』. 韓國佛教全書, 第六冊.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637-669.
- [15] 釋璨(錄). 1974. 『白雲和尚語錄』. 韓國高僧集, 高麗時代三. 서울: 경인문화사.
- [16] 永嘉玄覺 著. 1992. 『禪宗永嘉集: 附錄 證道歌』. 慧業 編譯. 서울: 불광출판부.
- [17] 정병조. 1995. 白雲의 無心禪에 관하여. 『韓國佛敎學』, 제3집: 273-281.
- [18] 鄭性本. 1991. 『中國禪宗의 成立史研究』. 서울: 民族社.
- [19] 정제규. 2006. 『마음을 노래한 글, 직지』. 청주: 충청북도.
- [20] 『直指』, 下. 2007. 금속활자본. 칼라(color)사진 영인본(影印本: 오침안정법 한장본(五針眼釘法 韓裝本)).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금속활자본. 원본(原本):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所藏).
- [21] 청주고인쇄박물관. 2008. 『직지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과주: 대학사.
- [22] 太古普愚 著. 1990. 『太古和尚語錄』. 雪栖 編. 韓國佛教全書, 第六冊.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669-701.
- [23] 혜능 지음. 2011. 『육조단경』. 광덕 번역. 서울: 불광출판사.
- [24] 혜능 지음. 2010. 『혜능 육조단경』. 단청선사 풀어쓰. 김진무 옮김. 서울: 일빛.
- [25] 慧能 著. 2003. 『六祖檀經』. 清華 譯註. 서울: 광륜출판사.
- [26] 慧謚 著. 1994. 『禪門拈頌(集)』, 1. 김월운 옮김. 서울: 동국역경원.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Goryeosa*, Gwon 54, Ji 8.
- [2] *Geumgang Banya Baramil-gyeong: Geumgang-gyeong*.
- [3] Kim, Wol-Un. 2008. *Jeondeungnok*, 1. Seoul: Dongguk Yeogyegwon.
- [4] *Jikji*. 2006. Translated by Dongguk Daehakkyo Yeogyegwon. Cheongju: Cheongju-si.
- [5] *Maha Banya Baramiltasim-gyeong: Banyasim-gyeong*.
- [6] *Baeun Sunim Orok*. 1996. Commented and translated by Mubi. Seoul: Minjoksa.
- [7] Mubi. 2011. *Jikji Gangseol*. 2 vols. Seoul: Bulgwang Chunpansa.
- [8] Park, Moon-Year. 1997. "A study on Baekun Hwasang." *Inmun Gwahak Nonjip(Cheongju Daehakkyo Hanguk Munhwa Yeonguso)*, 17: 323-345.
- [9] *Yeokju Baegun Hwasang Eorok*. 1998. Translated by Park Moon-Year. Cheongju: Cheong Early Printing Museum.
- [10] Baegun Gyeonghan. *Baegun Hwasang Chorok Buljo Jikji Simche Yojeol*. Woodblock ed. held by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11] Baegun Gyeonghan. 1990. *Baegun Hwasang Chorok Buljo Jikji Simche Yojeol. Hanguk Bulgyo Jeonseo*, vol.6. Seoul: Dongguk Daehakkyo Chulpanbu, 604-636.
- [12] Baegun Gyeonghan. 1990. *Goryeo Baegun Hwasang Eorok*. Commented and translated by An Beopsan. [Pyeongchang]: Yeonggamsa.
- [13] Baegun Gyeonghan. *Baegun Jikji: Baegun Hwasang Chorok Buljo Jikji Simche Yojeol*. Translated by Yi Cheol-Gyo. Unpublished copy.
- [14] Seok Chan (Lok). 1990. *Baegun Hwasang Eorok*. *Hanguk Bulgyo Jeonseo*, vol.6. Seoul: Dongguk Daehakkyo Chulpanbu, 637-669.
- [15] Seok Chan (Lok). 1974. *Baegun Hwasang Eorok*. *Hanguk Goseungjip: Goryeo Sidae 3*. Seoul: Gyeongin Munhwasa.
- [16] Yeonghui Hyeongak. 1992. *Seonjong Yeonggajip: Burok Jeungdoga*. Edited and translated by Heyeop. Seoul: Bulgwang Chulpanbu.
- [17] Jeong, Byeong-Jo. 1995. "Baegunui musimseone gwanhayeo." *Hanguk Bulgyohak*, 3: 273-281.
- [18] Jeong, Seong-Bon. 1991. *Jungguk Seongjongui Seongnipa Yeongu*. Seoul: Minjoksa.
- [19] Jeong, Je-Gyu. 2006. *Maumul Noraehan Gul, Jikji*. Cheongju: Chungcheongbok-do.
- [20] *Jikji*, vol.Ha. 2007. Metal movable types ed. Color reproduction. Cheongju: Cheongju Early

Printing Museum.

- [21] Cheongj Early Printing Museum. 2008. *Jikji: Baegun Hwasang Chorok Buljo Jikji Simche Yojeol*. Paju: Taehaksa.
- [22] Taego Bou. *Taego Hwasang Eorok*. Compiled by Seolseo. Hanguk Bulgyo Jeonseo, vol6. Seoul: Dongguk Daehakkyo Chulpanbu, 669-701.
- [23] Hyenung. 2011. *Yukjo Dangyeong*. Translated by Gwangdeok. Seoul: Bulgwang Chulpansa.
- [24] Hyenung. 2010. *Yukjo Dangyeong*. Translated by Danching Seonsa. Seoul: Ilbit.
- [25] Hyenung. 2003. *Yukjo Dangyeong*. Commented and translated by Cheonghwa. Seoul: Gwangryun Chulpansa.
- [26] Hyenung. 1994. *Seonmunjeomsong(Jip)*, 1. Translated by Wol-Un Kim. Seoul: Dongguk Yeogyongwon.